

濟州島海女服研究

김 정 숙

目 次

- I. 서 론
- II. 제주도 의 풍토와 해녀의 생활상태
- III. 해녀복의 역사적 고찰
- IV. 해녀복의 종류와 시대적 변천 과정
- V. 유품의 실측 및 제작 방법
- VI. 제주도 해녀복의 특징
- VII. 결 론

I. 序 論

1. 研究의 內容과 目的

본 論文은 濟州島 해녀복에 대한 연구를 目的으로 한다. 岩波의 「廣辭苑」에 의하면 민속이란 人民, 民間의 풍습, 관례라고 하며 민속복이란 민중 사이에서 전승되어온 생활문화 속의 의복 및 장식품을 말한다. 따라서 민속복을 연

구하는 대상은 都市文化보다도 農山漁村의 문화이며 上流支配層보다 下層庶民의 생활 속에 있는 傳承的服裝이라는데 있다.¹⁾

上層의 문화는 기록된 자료가 많지만 下層의 문화에 관한 기록은 아주 드물다. 우리는 민속복을 통하여 옛날부터 내려온 서민생활과 그 생활 변천 과정을 알 수 있으며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 풍토까지도 論할 수 있다.

濟州島는 자연적, 역사적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牧子服(가죽 두루마기), 農夫服(갈옷), 海女服(물소중이)등 향토색 짙은 濟州島 樣式의 민속복이 발달했다.

이러한 민속복은 전통사회가 근대사회로 변하고 공동사회가 이익사회로 변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소멸되거나 변형이 되어버린다. 인간과 服飾은 단지 풍토에 의해 규정되는 것 만은 아니다. 반대로 인간이 풍토에 작용하여 풍토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²⁾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해너복은 濟州島 풍토에 의한 것으로 濟州島 해변가 여인이라면 누구나 입었던 옷이며 이 옷은 생존을 위해 바다에서 작업할 때 입었던 강인한 생활력을 나타내주는 민속복이다.

高富子는 해너복을 구조상 작업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과학적이면서도 위생적인 제도법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³⁾

반면 이렇게 합리적이며 능률적으로 제작되고 활용되어 온 해너복이 現代化된 사회속에서는 무관심으로 인해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게 되었으며, 따라서 소멸해 가는 민속문화의 자료수집과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現存하는 재래식 綿製 해너복인 물소중이와 물적삼을 중심으로

첫째, 濟州島의 풍토와 해녀의 생활상태를 고찰하며,

둘째, 해너복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고,

셋째, 해너복의 종류와 시대적 변천 과정을 살펴,

1) 杉本正年, 《東洋服裝論攷》(古代編), 東京:文化出版局, 1976, pp. 10-16.

2) 曹圭和, 《服飾美學》, 수학사, 1982, pp. 84-90.

3) 高富子, "濟州島服飾의 民俗學的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71. p. 65.

넷째, 유품을 도식화하고, 제작방법과 해너복의 특징에 대하여論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해너복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研究方法 및 制限點

문헌적 자료와 유품을 중심으로 해너복의 着用背景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그 유품과 문헌이 충분치 않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古老들과의 대화에서 해너복의 제작방법과 기능적 특성, 着用法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사용되어진 유품은 濟州民俗博物館에서 4점,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에서 3점, 濟州民俗村에서 3점을 협조 받았으며 기타 개인소장 유품 21점을 중심으로 圖式化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너복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물소중이를 중심으로 하였고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해너복에 대한 문헌적인 자세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고,
2. 문헌자료가 있어도 단순하게 記述되어 현대 이전의 유품으로는 그 생활상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다.
3. 수집된 물소중이 형태 이외에는 과거에 입었던 해너복의 전반적인 모습을 완전하게 연구할 수 없다.
4. 陸地와의 영향관계를 확실히 뒷받침 해주는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제한점은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II. 濟州島의 風土와 海女의 生活狀態

1. 濟州島의 風土와 民俗服

濟州島는 자연적·역사적 환경의 특수성으로 濟州島 樣式의 민속복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해녀복과 연관된 풍토를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풍토라 함은 日照, 雨量, 土壤, 風向 등과 같은 물리적인 立地條件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풍토이며 정신적, 철학적 풍토를 말한다. 그래서 풍토의 현상은 문예, 종교, 미술, 복식, 풍속 등 모든 인간 생활의 표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⁴⁾

1) 자연적 환경

濟州島는 북위 약 33°근처에 위치하여 중심부에 해발 약 1900m의 山頂, 동서로 약 75km, 남북으로 약 30km이고 주위가 약 254km인 타원형의 섬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1,819km이다.⁵⁾

本島는 日本 및 中國大陸과 왕래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 문화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으나 元宗 14년(1273)부터 약 1세기 동안 元의 지배, 고려 중엽부터 왜구의 노략질은 그치지 않아 도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도민의 排他的 성격 형성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섬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은 해녀 잠수업에 의존하게 되었다.

기후는 해양성 기후로써 한반도와 비슷하나 年中 기온이 온화하여 겨울은 영하 6°C이하로 내려 가지 않으며 中國, 日本과 더불어 몬순지역에 속한다. 和辻哲郎은 副題인 “人間學的 考察”에서 풍토를 몬순형(아시아), 목장형(유럽),

4) 조규화, 1982, pp. 84-90.

5) 이동규, “제주도의 일기 및 기후”, 《국경화시대의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회, 1988, p. 95.

사막형(서아시아) 세 類型으로 나누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몬순지역의 주민을 受容的, 忍從的으로 규정하고 있다.⁶⁾ 또한 Koppen의 분류법에 따르면 濟州島는 온대 다우 지역에 속한다. 이러한 기후 조건은 목초의 성장을 도와서 목축지대로 적격인가 하면 김매기가 年中 불가피한 일거리의 하나로 여인들의 노동량을 가중시켰다.

예로부터 농경 위주의 생활을 영위해 왔던 濟州島는 농토로는 적합하지 않는 火山灰土와 기후에 의한 風多災, 水多災, 旱多災로 흉년의 연속이었기때문에 농사에만 의존 할 수 없어 낮이면 밭에 가고 밭일이 한가하면 바다에 갔으며 밤이면 양태와 탕전을 짰다. 그런 까닭에 濟州島의 민요 대부분이 勞動謠이고 그 노동요의 거의 전부가 女性謠에 해당된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경제면의 주권도 여자가 쥐고 있다.⁷⁾

2) 역사적 환경

濟州島에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미친 역사적 배경은 三別抄軍의 入據와 유배인들의 영향이다. 三別抄軍이 진압된 후 1백년 동안 元의 지배는 농경법과 누에치기와 벼찌는 기술, 牧馬飼育法이 전해졌고 풍속에도 새로운 색채가 나타났다. 가죽옷, 가죽보선, *말모는 소리 등이 그 두드러진 것이다.⁸⁾

高麗때에 禡王 8년(1382)에 明에 정복당한 雲南 梁王의 아들 拍拍太子와 梁王의 자손들이 濟州島에 유배되었고 1388년에 明나라에 멸망당한 元나라의 達達親王과 왕족 팔십가구가 이 섬에 유배되어 최후를 마쳤다. 恭愍王 4년(1392) 前元의 상류 사회 인물들이 濟州島에 영주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와 풍속이 전래되었으며 특히 감물(柿汁)을 무명에 들여 만든 갈옷도 (圖1-1) 이때부터 전

6) 和辻哲郎, 《風土》, 弘文館, 1935. 외복의 기후 조건을 단지 寒暖으로 나눈 이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습도에 의하여 새로운 시야를 보였으며 목장적 풍토의 유럽인을 “합리적”이라 하고 사막적 풍토의 인간의 구조를 “대항적” “전투적”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7) 현평효·현용준·양중해·김인제·김영돈·고성준·강경선, “탐라정신연구”, 《제주대학 논문집》, 제11집, 1979, p. 31.

8) 濟州市, 《濟州市 三十年史》, 濟州市, 1985, p. 152.

* 말을 모는 소리

해 진 것이라 한다.⁹⁾

朝鮮에 들어서 유배지로 주목되면서 來島된 선비들은 본 도민의 가슴속에 銳利한 역사의식에 입각한 국가관과 사물의 합리적 처리 방법 및 사회정의와 인간성들을 심어 주는 영향을 미쳤다.¹⁰⁾

특히 18세기 李衡祥 牧使는 수증 작업복을 고안했으며 16세기 金淨의 「濟州風土錄」, 17세기 金尙憲의 「南槎錄」, 李健의 「濟州風土記」, 19세기 秋史 金正喜의 제자양성은 濟州의 학문과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衣生活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전통복식을 보급시켜 濟州島民들이 혼례시나 제례, 나들이 할 때에는 京樣式을 적용하였다. 또한 濟州島의 민간 신앙 체계는 남과 여의 이중신앙 구조로 요약된다. 崇祖祭에서 巫俗祭儀인 귀양풀이, 시왕맞이 등은 여성들에 의해 주관되고 祭祀와 墓祭는 남성이 재관이 되며 여성은 제물 준비와 심부름을 맡는다. 家庭信仰도 성주, 조왕, 문신, 안칠성, 밧칠성 등은 주부의 주관하에 무당에 의해 致祭되고 土神祭와 崇祖祭에 편입된 門神은 남성에 의해 儒式祭儀로 모셔진다.¹¹⁾ 남자는 일종의 種族用이거나 삶의 외곽 지대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중세 이후 濟州島 여자의 노동력이 발달한 것은 남자들이 元이나 高麗, 朝鮮의 권력장에 징발, 강제 노역으로 뽑혀간 뒤의 가정을 여자가 맡기 시작한 사실에서 그 기원을 엿볼 수 있다. 거기다가 근세 시대의 京官이나 謫官들이 그들 자신은 閑暇를 누리는 대신 여자를 생활의 도구로 삼는데서도 강조된다. 그것이 가장 최근에는 四·三사건으로 (1948) 많은 남자가 한라산의 격색 반란에 가담하거나 右翼편 참가자로 쌍방에서 死傷을 당하여 남자가 격감되어 다시 한번 여성 중심의 생활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¹²⁾

이러한 자연적, 역사적 환경 가운데 濟州樣式의 민속복이 발달했다. 本島는 생산수단이 목축업과 농사·어업에 의존하고 있어 牧子들이 입는 가죽옷(圖

9) 탐라성주유사편집위원회, 《탐라성주유사》 高氏宗親會總本部, 1979, p. 125.

10) 최영희, "역사기행: 제주편", 《향토문화시대》, 1987년 3월, p. 470.

11) 현병효 외 6인, 1979, p. 33.

12) 고은, 《濟州島》, 일지사, 1976, p. 201.

1-2), 농부들이 입는 갈옷, 해녀들이 잠수할 때 입는 물소중이 (圖 1-3)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향토색을 띤 노동복이 나타났다.

가난과 노동에 시달렸던 濟州島民의 衣生活은 피부재료도 귀하어서 유교 문화를 받아들일 여유 없이 裸體覆蓋의 의미와 기능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濟州島民의 衣生活은 濟陰 金尙憲의 編著인 「南槎錄」에서 짐작할 수 있다.

대정에서 목면을 심으나 다만 꽃피는 것이 옥지와 같지 아니하고 발임자가 겨우 옷숨을 만들 정도이며 삼은 비록 생산되나 길쌈에 알맞지 아니하다. 대개 토질이 척박하고 또 지방 사람은 예로부터 누에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릇 의복자료는 토산 해물을 옥지로 옮겨 바꾸어 온다고 하였다.¹³⁾

윗 글에서 本島의 의복재료인 무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濟州島에는 목면을 400여년 전에 濟州 서남부에 재배했다고 한다. 당시 생산한 목면은 貢物로 나라에 바쳤기 때문에 도민들에게는 옷감이 귀하어서 무명(미녕)이 물물교환의 기준이 되었다. 예를 들면 씨앗 열말지기 밭을 미녕 20필로 물물교환으로 *미녕을 얻어 사용했다. 농가에서는 직접 생산하여 가족들의 필요량은 모두 자급 자족 하였다.¹⁴⁾

이런 여건은 작은 옷감을 활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구조를 가진 물소중이를 제작하게 했으며 그 옷에는 생존을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강인한 생활력과 생활의 슬기를 느낄 수 있다.

3) 海女의 生活狀態

해녀는 濟州島의 중심으로 한 韓國과 日本에만 있으며 潛水漁勞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海水溫이나 透明度가 알맞아야 하고 조개

13) 金尙憲 編, 《耽羅文憲集: 南槎錄》, 朴用厚(譯), 濟州도교육위원, 1976, pp. 55.

今則大靜種大錦 但結花不似陸地 田主僅作衣絮 麻桑雖產不宜紡績 蓋緣土品瘠薄 且土人自古不喜養蠶 凡所衣着之資 皆以土產海物 懇遷於陸地云

14) 金奉玉(編), 《高內里誌》, 在日本 古內里 觀陸會, 1980, p. 96.

*濟州도에서는 무명(木綿)을 미녕이라 함.

류나 해조류의 생육 조건이 좋은 岩礁海域이라야 한다. 그리고 부근의 바다에 사람을 해치는 海魚, 海獸가 없어야만 好條件이 된다.¹⁵⁾

濟州島에서는 해녀는 潛嫂라고도 하며 노파들 사이에서는 가끔 潛녀라 하기도 한다. 숙종 28년(1702)에는 漁戶 겸 蠶絲공의 처를 潛녀라고 불렀다.¹⁶⁾ 해녀가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中宗實錄(1520)에 “이곳 사람들은 해산물로 살아간다.”¹⁷⁾라고 기록이 되어 있듯이 현재도 어촌의 경우 가계의 존도는 해산물 채취에 두고 있으며 濟州島 수산물 수출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0% 이상이다. 1965년의 해녀 수는 23,081명이었으나 1986년은 6,627명으로 濟州島 여성 인구의 2.6%이다. 이와 같이 해녀 수의 급격한 감소 현상은 경제 개발과 더불어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濟州島의 높은 진학율에 따른 교육 수준의 향상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¹⁸⁾

1960년대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물질 잘 하는 처녀가 최고의 新婦였으며 여자아이들은 7, 8세가 되면 갯가에서 어머니를 흉내내어 해엄치는 연습을 한다. 10세가 되면 어머니로부터 태왁을 받고 차차 깊은 바다로 들어가 잠수 연습을 한다. 그러나 물건을 채취하지는 않는다. 14세가 되면 처음으로 눈(안경), 호미, 빗창등을 어머니로부터 받아 물건을 따기 시작한다.¹⁹⁾ 결혼하게 되면 시집에서 <태왁>, <망사리>, <빗창>, <종계호미> 따위를 알뜰히 장만하고 며느리에게 준다. 잠수에 임할 때에는 “소중이”라고 불리우는 면재 수영복을 준비하고 눈(안경), 태왁, 망사리, 빗창, 종계호미 그밖에 골각지, 고동망아리, 송동바구리들이 필요하다.²⁰⁾ 푸른 바다에 생명을 걸고 가족의 생계를 떠 맡고 있는 해녀 사회는 공동 의식이 강하여 개인의 이익이 성립될 수 없으며 질서

15) 北濟州郡, 《北濟州郡誌》, 北濟州郡, 1987, pp. 549-550.

16) 金奉玉(編), 《朝鮮王朝實錄中耽羅誌》, 濟州文化放送株式會社, 1986, p. 477.

17) 앞글, p. 278.

18) 김영돈·김법국·서경림,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제5집, 1986, pp. 145-268.

19) 泉靖一,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1971, p. 113.

20) 김영돈, “제주해녀의 민속학적 연구”, 《제주도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1986, p. 187.

는 절대적이다. 해녀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상잠수가 앞장을 서서 태왁을 가슴에 안고 해엄을 치면서 노래를 先唱한다. 뒤를 따라 해녀들이 줄을 지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박복한 신세를 한탄하며 우는 해녀도 많았다. 濟州島 해녀의 하루 조업은 완전히 하루를 裸潛勞動에 消盡하는 것은 아니고 半農 半漁의 생활 형태이다. 이 경남 (1968년 9월)²¹⁾ 조사에 의하면 하루 해녀 노동 시간은 평균 90분이고, 하루 평균 수입액은 3백원이었다. 잠수부들은 한달 평균 10일쯤 작업하는데 추운 겨울철에는 작업 일수가 5일로 줄어든다. 바다가 거칠지만 않는다면, 임신, 월경, 분만직전후까지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리더라도 操業을 하였다. 면제 해녀복을 입었을 때 순 작업 시간은 여름 때에는 3시간 정도이고 겨울에는 불과 30분 정도이다. 잠수 작업을 하는 水深은 대개 최고 20미터에서 최저 5.5미터에 달하며 이때 잠수들의 1회의 잠수 시간은 평균 1분 30초이며 최고로는 약 3분까지도 연장되는 이가 있다. 무자맥질(잠수하는 일)을 10회 되풀이 하고 나면 체온이 떨어져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해 해변가에 마련한 불턱에서 모닥불을 켜다.²²⁾ 먼저 물에 나온 사람은 잠수들이 바다로 올 때 한단 썩 가져 온 빨감에 불을 당긴다. 우선 마른 옷으로 갈아 입고 上衣(누빈 솔 같은 두메기)를 쓰고 앉아 추위를 녹인다. 소라를 구워 먹기도 하고 미역 부분인 '귀'를 도려내어 부지깽이에 매달고 파랗게 그을려 먹으면서 사소한 집안일에서부터 누구집 大小事까지 온갖 새 소식을 주고 받는다.²³⁾ 한창이던 물질도 겨울이면 뜸해지고 음력 3월 중순이 되면 다른 지방으로 물질을 하러 갔다가 팔월 추석을 며칠 앞두고 고향으로 돌아 온다. 濟州島 잠수들은 1889년 경에는 莞島, 釜山, 影島, 巨濟島, 南海의 突山, 蔚山, 慶北일대까지 출가하였다.²⁴⁾ 1910년대에는 出稼 海女の 수는 2천 수백명에 이르렀고 해방 후에는 5천명을 넘어 섰다. 해방 전까지는 出稼地域이 다양해서 日本의

21) 이경남, "제주도 해녀의 노동 생산성 실태", 《재대신보》, 1969년 9월 30일, p. 2.

22) 김영돈·김범국·서경림, 1986, pp. 145-268.

23) 한림화·김수남, 《제주바다잠수의 사계》, 한길사, 1987, pp. 30-51.

24) 강대원, 《해녀연구》, 개정판, 한진문화사, 1973, p. 43.

각 지방은 물론 露領 우라디보스톡, 中國의 靑島까지 출가했다.²⁵⁾ 출가 잠수의 田主들의 박해와 수탈은 잠수들의 생활을 고달프게 했으며 19세기에 일본인의 어업 침략은 참을 수 없는 고난이었다. 日本人들이 高麗末부터 全羅, 慶尙道연안 일대를 중심으로 19세기까지 어업 침략은 성행하였으며 日本어민이 半裸體 또는 赤裸體로 부락을 배회하여 美風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녀들은 조업중에 있다가도 이들을 만나면 놀라서 도피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어획물을 도난당하기도 하여 島民은 日本 漁民을 증오하게 되었고 항일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32년 1월 細花里에서 해녀 1천여명이 해녀 복장을 한채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다.²⁶⁾ 이런 투쟁의 결과 해녀들은 근면, 검소, 자립정신이 형성되었다.

25) 한림화·김수남, 1987, pp. 52-65.

26) 濟州道, 《濟州道誌 下卷》, 濟州道, 1982, pp. 154-156.



圖 1-1. 갈적삼과 갈 몸배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圖 1-2. 가죽감태 및 가죽두루마기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圖 1-3. 물수건, 물직삼, 물소중이 입은 해녀「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Ⅲ. 海女服의 歷史的 考察

濟州島가 잠수부의 발상 지역이라고 믿어지고 있으나 잠수 생활의 시작 시기는 不分明하다. 考古學的인 견지에서 潛水操作은 이미 4세기 이전에 시작되었으리라는 추측을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추리해 볼 수밖에 없다. 三國史記 卷 19 高句麗本紀 文咨王 13年 (A. D. 504)條에 珂則涉羅所產²⁷⁾라 한 것을 보

27) 金富軾(高麗仁宗 23年, 1145), 《三國史記》,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1973, p. 146.

면 이미 6세기 초에 涉羅 즉 濟州島에서 珂一 곧 진주가 생산되어 멀리 魏에 까지 조공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보다 앞서 5세기경 日本과 新羅에도 진주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이러한 사실들은 5~6세기경에 日本과 濟州島를 중심으로 한 그 沿海에 單身으로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고 海水中에 잠수하여 海底에 있는 진주를 비롯한 전복, 문어, 굴 등의 여러가지 어물을 채취하는 一端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설명이라 볼 수 있다.²⁸⁾ <東亞世亞民族史 I>에는 5~6세기경 北九州 연안의 백성은 漁撈를 중심으로 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남자가 물속에 들어간다. 그 일본 남자들은 어른, 아이의 신분 구별없이 모두 얼굴과 몸에 文身을 하고 있다. 남자들이 문신을 하고 있는 것은 大魚와 水鳥의 위협을 방어하고 몸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 습관은 중국 양자강 남부의 해안 지방 習俗과 관계가 있다. 이 문신 풍속이 韓人 사이에도 널리 퍼졌으며 많은 海人들이 日本으로 건너 왔었다는 사실로 하여 倭人과 韓人의 교류는 극히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延喜式〉기사에서 알 수 있으며 그 기사에는 濟州島가 옛부터 전복의 산지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²⁹⁾ 또한 東國輿地勝覽 卷 38 濟州牧土產條³⁰⁾에 「빈주」라 하여 명확히 진주조개라고 밝히고 있으니 이 당시에 이미 耽羅에서 진주를 채취한 것이 확실하다.

이상의 사적 기록으로부터 잠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주와 그밖의 해물을 채취한 사람들이 반드시 여자들만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 조선중기까지 남자는 전복을 따고 여자는 미역 청각 등 해조류를 채취했다. 그 당시는 沿岸淺核에 각종 패류 및 해조류 자원이 풍부하여 쉽게 포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물속에서 잠수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진주를 채취하기

-
- 28) 민경희, "한국해녀의 역사 및 생활실태", 《梨大史苑》, 5집, 1964, p. 87.
三國史記 卷 25 百濟本紀 腆支王 5年 (409)條에 倭國遣使, 送夜明珠, 王優禮待之라하고 또 三國史記 卷 11 新羅本紀 憲康王 8年條 日本國遣使, 進黃金三百兩 明珠一十箇
- 29) 中村由信·官本常一, 《海女》, 株式會社 マリン企畫, 1978, pp. 138-140.
*〈延喜式〉은 905년에 편찬된 律令集이며 三國志가 쓰여지고 나서 600여년 뒤에 쓰여진 책이다.
- 30)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八：濟州牧》, 조선사학회, 1930, p. 9.
蠙珠, 高麗忠烈王二年, 元遣林推幹採珠于耽羅, 不得, 乃取民所藏所餘枚, 以還.

위해서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서 작업한 것은 남자인 것 같다. 당시 나잠업은 남녀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몇가지 사실로 알 수 있다.

高麗肅宗 10년 (1105)에 耽羅郡으로 改稱되면서 勾當使 尹應均이 本島에 부임하여 男女間의 裸體 操業禁止令을 내린 바 있고,³¹⁾ 濟州목사로 역임했던 奇慶은 世宗 25년(1443) 12월 주민들이 겨울에 조업하는 것과 남녀가 같이 전복을 채취하는 작업 현황을 직접 돌아보고 주민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덜기 위해서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까지 일체 전복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조정에 진상하는 토산품중에서 전복은 매우 귀중한 품목이었다.³²⁾ 지금까지는 어획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녀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정도였다. 그러나 朝鮮 仁祖 7년 (1629) 李健의 <濟州風土記>에는 잠녀의 모습을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어 다음의 내용으로 잠녀의 생활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해산에는 단지 생복, 오적어, 분과, 옥두어 등 수종이 있고 이외에도 이름 모를 수종의 물고기가 있을 뿐으로 다른 어물은 없다. 그 중에서도 천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잠녀라고 한다. 그들은 2월이후부터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 그 미역을 캐낼 때에는 소위 잠녀가 빨가벗은 알몸으로 해정을 편만하며 낚을 갖고 바다에 떠다니며 바다 밑에 있는 미역을 캐어 이를 끌어 올리는데 남녀가 상잡하고 있으나 이를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³³⁾

그런데 이보다 前時代에 나온 기록이나 문헌에는 잠녀에 대한 기록이 없는 데 기묘사화 (1519)에 관련이 되어 濟州유배의 몸이 된 金淨의 <濟州風土錄>

31) 濟州道, 1982, p. 151.

32) 金錫翼, 《耽羅文獻集: 耽羅紀年》, 金啓淵(譯), 濟州道教育委員會, 1976, p. 376.

33) 李健 (出版年度未詳), 《耽羅文獻集: 濟州風土記》, 金泰能(譯), 濟州도교육위원회, 1976, p. 198.

海産只有 生腹 烏賊魚 粉薑 王頭魚等數種 又有名不知數種外 更無他魚 其中所賊者薑也 採薑之女 謂之潛女 自二月以後至五月以前 入海採薑 其採薑之時 則所謂潛女 赤身露體 遍滿海汀 持鐵淨海 倒入海底 採薑曳出 男女相雜 不以爲恥 所見可駭

에는 잠녀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없다. 高麗史地理誌, 東國輿地勝覽을 편찬했던 濟州島 출신 梁誠志 (1415~1482)는 잠수에 대하여는 조금도 기록해 놓지 않았다. 어쩌면 양성지는 濟州人으로서 朱子學이 보급되던 이 시기에 잠녀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고향의 여자가 사람 앞에서 나체가 된 것을 官制史書에 썼을 리가 없다고 본다. 또한 金淨은 유교적인 統治를 주장하던 사람이다. 이 역시 잠녀에 관한 것을 붓으로 썼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³⁴⁾ 17세기까지 잠녀의 모습에 대한 기록은 李健의 <濟州風土記>에서 처음으로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 赤身露體라 함은 완전히 나체인 상태인지, 나체처럼 보였는지 그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본 논문에서 赤身露體의 정도를 <소중이>만 입고 작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중이>라 함은 濟州島 특유의 여자용 (팬티)를 말하며 따라서 가슴은 노출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는 바닷가의 해녀를 '潛女·雜女'라고 경멸하는 풍조가 있어 朝鮮朝 流配士類들의 사상인 '山不近 海不近山'라는 中山間地帶論이 우세하여 이 지대는 濟州島 사회 지도계층의 부락이 형성되었다.³⁵⁾ 그래서 해변가에서 작업을 하는 잠수들은 타인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으며 옷감이 귀하여 평상복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에 바닷물에서 빨리 손상해 버리는 작업복을 따로 마련할 생활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儒敎의 영향으로 완전한 알몸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당시 日本은 고시마끼 (腰巻: 허리삼바) 하나로 잠수하고 있었으며, 1960년대까지 腰巻만 걸쳐서 작업하는 지역이 많았다. <圖 2-1>

濟州島 잠수복이 史的으로 기록된 것은 속종 28년 (1702) 李衡祥 敎使 당시라고 볼 수 있다. 그때 악습이던 동성동본간의 결혼과 異姓이라도 아주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을 엄금하였으며 유치자가 공공연히 거둬 娶妻하는 풍속과 혼례 때 交拜하지 않는 자, 남녀가 같이 목욕하는 惡習, 그리고 부녀자들의 나체 행동을 엄금하는 한편 잠녀들에게는 현재 착용하고 있는 潛女水中作業服인 특이한 양식의 작업복을 공히 스스로 고안하여 작업시에는 해변에서도 반

34) 東端一, 1971, pp. 108-140.

35) 고은, 1976, p. 116.



圖 2-1. 일본 해녀들이 전복주머니를 목에 걸고 있음. 「中村由信의 사진첩」(1958)

드시 이것을 착용하도록 관의 命令으로 강력히 권장했다.³⁶⁾ 이 論文에서 현재 입고 있는 <물소중이> 즉 수중 작업복은 李衡祥牧使가 고안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몇가지 사실들을 다음에 적어 보려고 한다.

첫째, <탐라순력도>³⁷⁾에 屏潭泛舟에 용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해녀는 흰색의 수중작업복을 입고 있다. <耽羅巡歷圖>는 瓶孺 李衡祥牧使가 濟州島의 방어, 군민, 풍속 등을 친히 살피면서 순력하는 장면의 그림과 설명을 주로 하고 지도, 감골, 목마, 산천 등에 관한 도면을 추가하여 만든 41도면과 2면의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도면은 숙종 28년 (1702)에 작성되어 있으며 숙종 29년 (1703)에 완성되었다.

여기의 병담은 곧 翠屏潭 오늘날의 龍淵이다. 즉 용연에서 밧놀이 하는 장

36) 李衡祥, 《瓶孺年譜》, 淸權祠, 影印本, 1979, pp. 229-231.

37) 李衡祥(肅宗 28년 1702), 《耽羅巡歷圖》,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影印本, 1979, p. 40.

면의 그림이나 용두암 밑에 한라산의眺望圖를 배경으로 해녀들이 조업하는 표현인데 흰색의 잠녀복을 입고 있다. (圖 2-2)

둘째, 古老 (70세이상의 노인) 와의 면담에서 공통적인 대답은 옛 할머니 모습에서 상체를 노출시켜서 조업하는 모습은 본적은 없었으며 가슴이 노출된 상태에서는 물속 깊이 작업할 수 없다고 한다. 간혹 가슴을 노출시킨 노인 해녀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파도에 의해서 허리부분이 가슴 밑으로 내려간 것이거나 옷감을 아껴서 허리 부분을 작게 재단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圖 2-3). 물소중이는 할머니가 입었던 형태나 지금의 형태와는 별 차이가 없으며 만드는 법은 어머니로부터 배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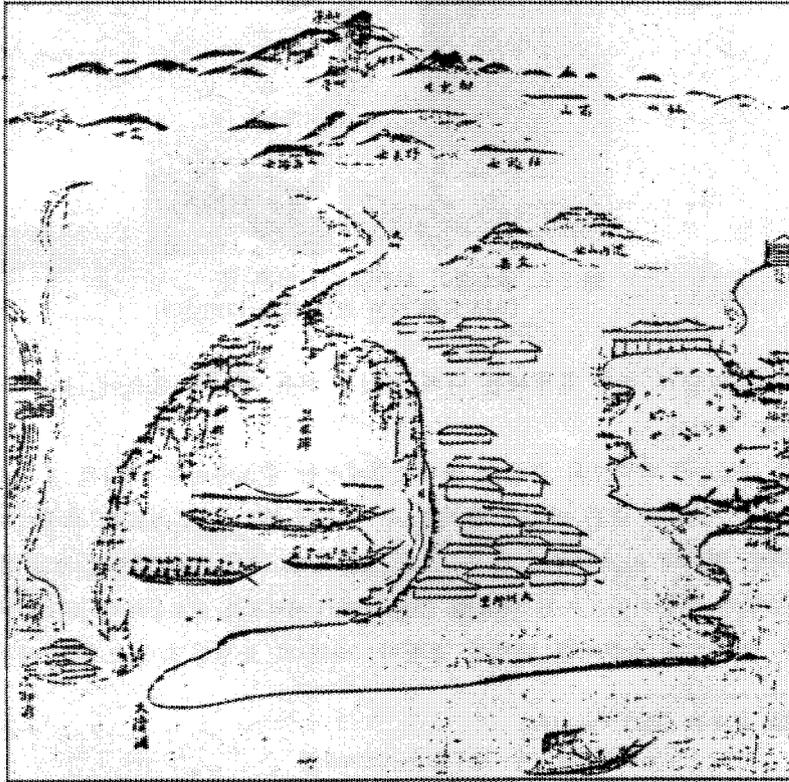


圖 2-2. 屏潭泛舟



圖 2-3. 물소중이 허리나비가 적은 옷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1920년대)

셋째, 1700년대 이후 문헌에는 나체 작업을 하는 잠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肅宗 (1840) 때 申光洙의 石北集 潛女歌中에서는 물소중이를 小袴로 표현하고 있다.³⁸⁾ 小袴는 작은 바지로 풀이할 수 있는데 濟州島 下內衣를 소중이라 함은 작은 형태의 바지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중이를 입으면 짧은 바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吳箕南 (1861-1930 : 서귀포시 상효동에서 태어남)의 潛孀란 時에서는 소중이를 달팽이 잠방이 (蝸提)로 표현하고 있으며 달팽이

38) 강대원, 1973. p. 174.

家家女兒出水頭一揪一袴一獅子赤身小袴何會羞

(집집여자들은 호미하나 망사리하나 두평박하나 만들어 맨 몸에 작은 물웃을 걸치고)

모양새와 소중이를 비교하고 있다.³⁹⁾

넷째, 日本 해녀복의 유래는 明治時代(1870년대)부터 언급되어 지고 있다. 志摩의 해녀들이 조선반도 연안으로 출가하면서 濟州島 해녀들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팬티를 입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운 해녀들만 실행했을 뿐이고 대부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⁴⁰⁾

이상의 사실로 물소중이는 지금으로부터 300여년 전에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재래식 해녀복은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도입된 고무잠수복으로 인해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1973년부터는 단체로 주문하여 입기 시작해서 1977년 12월 조사 때에는 濟州島 해녀 전체가 개량복인 고무잠수복을 현재까지 착용하게 되었다.⁴¹⁾

IV. 海女服의 種類와 時代的 變遷過程

濟州島 해녀복은 의복류와 기타 악세서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바다에서 잠수할 때 사용된다. 해녀복은 자연환경적 기후나 풍토적인 여건 속에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단순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해녀복은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 해녀복이나 해녀 도구를 둘러싼 습속이나 그 변천 과정은 개개인의 자생적 의사에 따른다기보다 집단과 환경의 영향이 짙다.⁴²⁾ 그래서 해녀복은 지역적 차이가 없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색채, 장식, 어깨끈에 있어서만 변화가 있었으며 종래의 양식에서 물적삼이 등장했다.

39) 오문복(編), 《영주풍아》, 제주목석원출판부, 1988, p. 157.

鯧繩織水泡舟同(소중이 입어 물을 누빌 댐 태왁을 배를 삼고)

40) 中村由信·宮本常-, 1978, pp. 138-140.

*고무잠수복: 濟州에서는 一名 스펀지 옷이라고도 하며 재료는 Neoprene고 무(내피用)로 되어 있다.

41) 北濟州郡, 1982, pp. 555-561.

42) 김영돈, 1986, p. 197.

1. 의복류

바다에서 잠수할 때 사용되는 의복류는 물소중이, 물적삼, 물수건 등으로 모두 綿製製品이다.

1) 물소중이

해녀들이 물질(잠수질)할 때 입는 옷은 「소중이」 「수건」 「속옷」 「해너복」 등으로 불리는 데 보통 해변가에서는 「속곳」 「물옷」으로 통하고 있었다. 물소중이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으며 그냥 「소중이」라고 하는데 濟州島 부녀자 팬티용인 소중이와 구분하기 위해서 물소중이를 물옷으로 표현하였다.

「소중이」란 濟州島 부녀자들의 특징있는 속옷인데 해녀 뿐 아니라 농가의 부녀자들도 속옷으로 입었고 농가의 부녀자들이 입는 소중이는 물질 때 입는 것과는 달리 매친(어깨걸이)이 없었다.⁴³⁾ 해녀들은 매친이 달린 물옷을 속옷, 잠수복, 물 맞으러 갈 때 입는 옷으로 사용하여 때와 장소 구분 없이 생활을 같이 해 왔다.

1960년대 이전까지 물옷을 속옷으로 입는 사람이 많았고 현재도 이것을 속옷으로 입고 있는 노인도 있다. 이유는 요즈음 나오는 메리야스 내외보다는 편하고 따뜻하다는 것이다. 또 몸매와 적삼을 입을 때는 허리와 가슴이 보이지 않아서 편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유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흰색이 많았는데 그것은 흰색은 속옷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사람이 많았고 검정색은 쉽게 퇴색되고, 낡아 보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버리거나 태워버린 사람이 많았다.

처음에 속옷에서 출발한 물옷은 흰 옷이었으나 차츰 검정색을 많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입게 되었다. 흰 옷은 부지런해야만 입을 수 있었다. 삶아야 했고, 풀을 해서 다듬어질하면서 입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러한 물옷을 입는 해녀는 자신의 근면성을 과시하는 해녀였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노인들이

43) 진성기, <제주민속의 멋>, 열화당, 1979, p. 54.

많았는데 물질하는 동안 검은 옷을 한번도 입어 본 적이 없다는 노인도 있었다. 주변에서는 흰 옷은 호사하는 사람만 입었고 여름에 많이 입었다고 한다. 또한 육지로 출가한 해녀들이 필바다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었으며 흰 적삼과 함께 입을 때는 검은 옷을 입는 것이 더 멋있었다는 등 겨울에는 따뜻하고 빨리 마르는 장점이 있었다. 검은 옷은 장만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 장날이나 물장수에게 물감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면 숯덩이에 삶아서 물을 들여 입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깃광목을 손질해서 검은 물을 들여 울을 바르게 손질하고, 풀하고, 다듬이질한 후 물웃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웃을 장만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큰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든 옷은 작으면 옆으로 늘였고 단추 고리로 품을 조절하였다. 임신을 하여도 새로 장만한 것이 아니라, 트임 쪽으로 옷감을 이어서 입다가 다시 체격에 맞게 옷감을 떼어 내서 조절하였고 터지면 옷감을 데어서 깎고 누비고 하여 옷감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입었다. (圖 3-1, 3-2) 이때 검은 광목이 있었다 하더라도 검은 광목을 구입하여 만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시중에서 파는 광목은 강도가 약하고 울도 고르지 못해서 수명이 짧았고 옷을 만들어도 뱀시가 좋지 않았다.

어쨌든 깃 광목에 물을 들여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해녀복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 필요한 물웃 수는 2~3개로 오전에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물 때가 되면 누군가 「바다로 가자」고 외친다. 그러면 여기 저기서 삼삼 오오로 배 지어 집으로 달린다. 바다가 가까운 데 있는 해녀는 집에서 물웃을 입고 오는 것이 보통이고 집이 먼 해녀는 태왁 안에 물웃을 넣어 가지고 나왔다가 큰 바위에 숨어서 옷을 갈아 입는다. 대개는 물웃을 입고 그 위에 몸매 (1940년 이후), 적삼을 입고 일하다가 송동바구리 (구멍)에 물웃, 델감, 수정, 밧창, 정계호미, 꿀각지, 태왁, 망사리, 등 도구를 놓고 바다로 간다. (圖 3-3) 불턱에 모여 든 해녀들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물웃으로 갈아 입은 다음, 물질 도구를 챙기고 태왁을 둘러매어 물가로 내달린다. 40분 정도 작업을 한 후 불턱에서 마른 물웃으로 갈아 입고 불을 켜고 불을 췌 때는 물웃만 입었으며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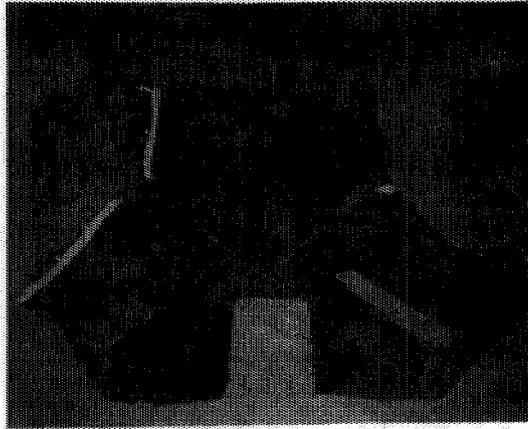


圖 3-1. 더진 차을 복림 해너복
「제주민속촌」



圖 3-2. 흰 해너복
(뒤쪽플레신, 앞, 앞가슴 부분에
흰 검을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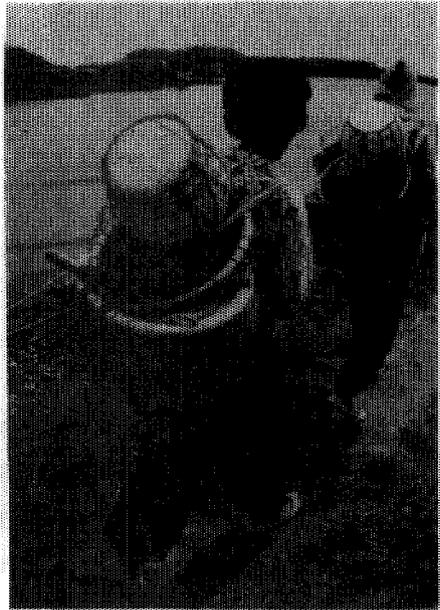


圖 3-3. 물구덕에 짐수도구를 모두 챙겨서
물집하러 가는 몸차림

에는 뚜레기를 쓰고 앉아 추위를 녹였는데 뚜레기 없는 사람도 많아 입고 잔 스웨터를 어깨에 걸친다. 물 때가 쫓은 때는 물소중이가 여러개 필요한데 2~3개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젖은 물옷을 햇볕에 말려서 또는 모닥불에 말려 가면서 갈아 입었다. 만일 마르지 않으면 젖은 물옷을 다시 입어서 물질화려 물속으로 들어 간다. 이렇게 4~5회 반복하기 때문에 물옷은 갈아 입는 것이 쉬워야 하는 가능성이 요구된다. 잠수가 완전히 끝나면 마른 소중이로 갈아 입어서 몸빼와 상의(적삼 또는 블라우스)를 입고 집으로 돌아온다. 잠수할 때 입었던 젖은 물옷은 세탁하여 다음날 입으며 만일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달 마른 물옷을 준비하고 바다로 가는 것이다. 불턱에서는 남의 물옷에 관심이 많아서 바래지 않은 옷감으로 흰 속옷을 만들어 입으면 게으른 잠수로 걸 적혀서 “깃칫 광무으로 속옷해영 입은 년이 뉘 뵈뵈하게 해여?” (바래지 않은 광 무으로 속옷 만들어 입은 년이 두었은 뵈뵈하게 할 수 있을까?)라며 두고 두고 비아냥 거리게 된다.⁴⁴⁾ 예쁘게 만든 물옷은 불턱을 한 바퀴 돌면서 솜씨를 자랑했다.

E. Gill(1882~1940)이 “인간의 의복은 자존심의 표현이며 자기 신념의 표현이다.”⁴⁵⁾라고 말한 것처럼 해너복에는 그 해너의 성격과 생활 상황이 표현되어 있었다. 가난 속에서도 조그만 조각을 이용하여 장식의 효과를 내려고 한 점과 스티치를 활용한 장식 등에서 기능성만이 아니라 표현성에도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멋을 내려고 한 점은 자신들의 생활을 한탄하기보다는 自尊心과 주체성, 진취성, 개적 정신을 갖고 생활에 임하려고 한 제주 여성의 생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 물 옷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700년대 이전 해너복

삼베, 미녕으로 된 濟州島 여인의 下衣인 소중이를 입은 것으로 추측함.

44) 한림화·김수남, 1987, p. 36.

45) Eric. R. Gill, 《衣裳論》, 增野正賢術(譯), 1967, p. 105.

나. 1700~1920년대의 해너복 (圖 3-4)

이때는 주로 천색의 미녕을 사용했는데 미녕은 물 속에서 무겁고 마르는데 시간이 걸렸다. 해너복은 「소중이」보다 허리가 길게 연장되고 어깨끈 (백천)이 하나였으며 트임의 여밈은 끈으로 하였고 바대나 장식하는 면이 없었다.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직접 배워 손수 만들어 입었으며 손으로 뿔막음질 (뿔침), 홑질, 감침질을 사용했다.

다. 1930~1970년대의 해너복 (圖 3-5~3-10)

이때는 미녕, 청복, 깃광복을 사용했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밀가루 부대를 사용했다. 젊은 해너들은 백천 대신 어깨말이 (조끼허리)를 했으나 백천에 비해 어깨 말이는 불편하여 백천을 그대로 이용한 사람도 많았다. 아가씨들은 가슴이 보일 염려 때문에 어깨말이를 많이 이용했으며 물적삼을 입을 필요가 없어 불편하여도 입었다. 그러다가 점차 오른쪽 어깨에 트임을 내었다. 그리고 해너복은 흰옷보다 검정옷을 많이 입게 되었다. 바느질은 재봉틀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부터는 풀상을 주면서 물웃을 맞춰 입는 사람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육지로 出稼했던 해너와 경제 발전으로 인해 해너복에 장식이 다양해졌다. 바대는 손상되기 쉬운 부분을 보호해 주는 실용적인 면도 있지만 장식하는 주된 부분이었다. 주로 처지, 허리, 백천, 옆트임에 재봉틀로 다이아몬드 무늬, 꽃무늬, 줄 무늬 스티치로 장식하였으며 바이어스 테이프 장식도 활용했다. 그리고 옆트임에는 벌모작 단추가 이용되었다. 끈은 젖었을 때 풀기가 힘들고, 겨울에는 손이 시렸으므로 벌모작 단추를 달았으며 간혹 매듭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밈을 끈으로 처리한 사람도 있었다. 이 매듭은 육지로 출가했던 해너들에 의해 보급되었으며 이 매듭은 해너들 사이에서 선물로 오가기도 했었다.

라. 1970년대 이후의 해너복

1970년대 초는 해너복이 다양하여 면제 해너복 (물소중이, 적삼)과 합성섬유로 된 물웃 (圖 3-11, 14), 고무 잠수복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게 되었



圖 3-4. 물소중이 밑에 적삼이나 내의를 입은 모습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圖 3-5. 작은 눈이 큰 눈으로 대체되는 시기로 흰 울옷만 입은 해녀로 잠수 도구를 한쪽으로
밧을 부러서 포즈를 잡고 있다. (1940년대 해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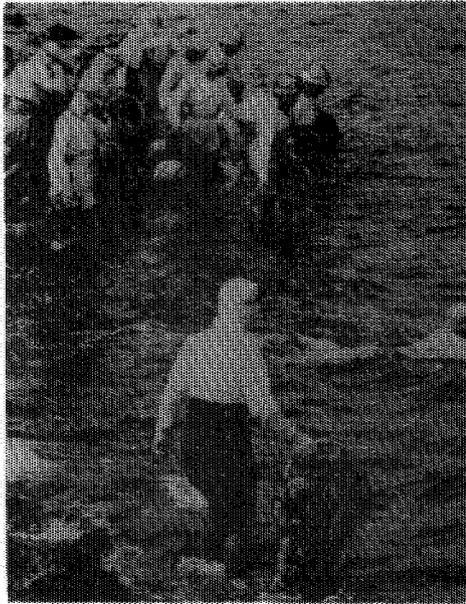


圖 3-6. 물수건과 까부리 모습이 보이며 대부분 물적삼을 입음. 「제주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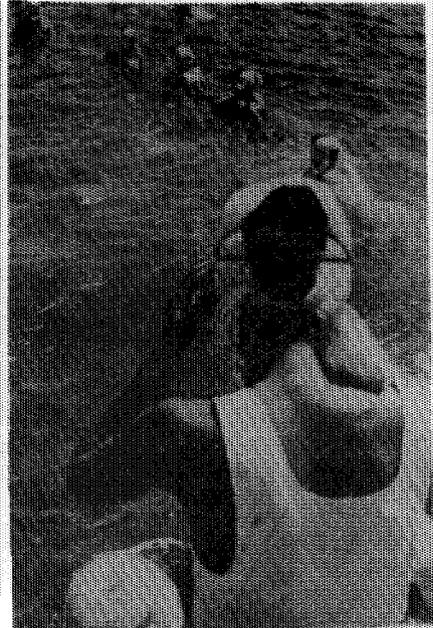


圖 3-7. 조끼허리를 단 해녀복



圖 3-8. 바다에 들어가는 장면 「해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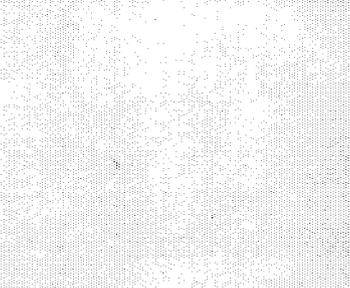


圖 3-9. 돌턱에서 복을 짜고 있는 작업장 「해녀연구」





圖 3-10. 물수건을 길게, 태양에 흰
형걸을 쓴 것이 특징이다.
「제주바다 잠수의 사계」



圖 3-11. 합성섬유로 만든 물소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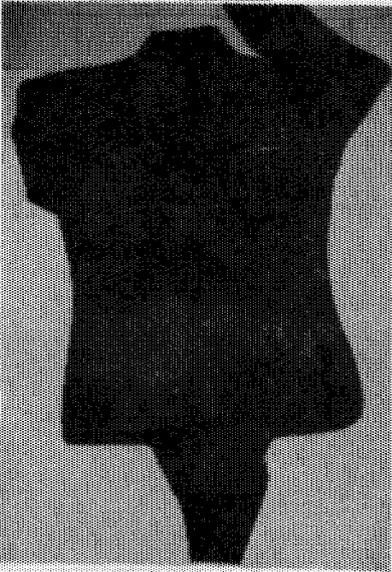


圖 3-12. 고무잠수복 상의.
허의를 고정시키는 집착부분이 있음



圖 3-13 고무
잠수복 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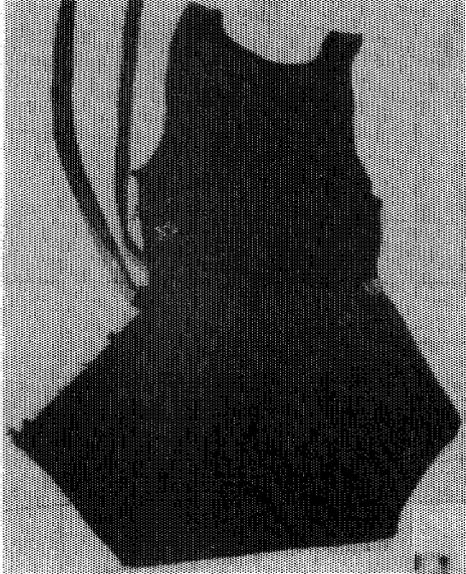


圖 3-14. 주름치마로 개조한 옷



圖 3-15. 고무잠수복에 망사리, 태왁 등 잠수도구를 들고 있음 「제주바다 잠수의 사계」

다. 스폰지 옷이라고도 하는 합성 고무 잠수복 (圖 3-15)이 일본에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중반의 일이며 濟州島에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보급되었으나 처음에는 가격도 비싸고 형태에 대한 반감을 가졌다. 그러나 고무 잠수복을 입었을 때는 어획량이 종전의 5배 이상에 달하고 또 수입도 5배로 높아졌기 때문에 1975년대에는 거의 보급이 되었다. 고무 잠수복은 면제 해녀복을 착용하던 1960년대의 1일 열량 섭취량 3000kcal와 비교할 때 고무 잠수복을 착용하는 오늘날의 열량 섭취량은 현저히 적어 비해녀보다 230kcal정도 더 섭취하면 된다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잠수복의 열절연 (thermal insulation) 효과 때문이라고 한다.⁴⁶⁾ 한편 조업 시간도 길어져 종전 30분~1시간에서 5시간 이상으로 크게 길어지고 조업 장소가 수심 10m 해역에서 12~13m로 깊어지면서 자원 고갈과 해녀의 직업병이 문제점으로 파생되고 있다. 우선 고무 냄새를 독하게 풍기므로 오랫동안 냄새를 맡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리고 입고 있을 때 몸에 밀착되기 때문에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 오르게 된다. 그 밖에도 부력이 증가하여 잠수하기가 힘들게 되므로 남덩어리를 차게 되는데 이것이 허리에 부담을 주고 요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장시간 작업으로 배설물 처리 때문에 식사를 거르고 작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에서 오는 위장병, 수압에서 오는 청각장애, 심장 계통의 질환은 일반화되어 약물 복용이 보편화 되어 버렸다. 제주신문에 의하면⁴⁷⁾ 도내 해녀 중 97%가 진통제와 진정제 등을 거의 매일 또는 잠수 작업 전후에 상습 복용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어촌계 의원이나 해녀 연구가들은 자원 고갈과 해녀의 건강을 위해서 고무 잠수복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며 다시 재래식 면제 해녀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녀의 생계 유지비 때문에 해녀를 위한 사회복지 대책이 세워질 때 재래식 면제 해녀복은 다시 등장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고무 잠수복은 착용 문제에 있어서도 몇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 옷은 상·하로 분리되어 있을 뿐 트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벗을 때는 서로 잡아 당겨 주면서 목들

46) 주순재, 이기열, 이양자, 박양생, "한국해녀의 영양섭취상태 및 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제16권, 제4호, 1983, pp. 233-242.

47) "해녀들 잠수병 갈수록 심각", 《제주신문》, 1989년 3월 23일, p. 1.

레 쪽으로 상의는 벗고 하의도 밀착되어 있고 탄력있는 스폰지여서 입고 벗기가 불편하였다. (圖 3-12, 13) 고무 잠수복 안에는 얇은 T-셔츠를 입고 팬티스타킹을 신어 고무와 밀착되는 끈끈한 기분을 없애고 있으나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배설물이 고무 옷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악취와 피부 질환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잠수복을 착용하게 되면서 많은 마을에는 불턱 대신 탈의장을 지었고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고무 잠수복은 2~3년이 되면 바닷물과 햇볕에 노출되어 얇아지고 틈이 생겨 다시 새 것으로 바꾼다. 가격은 현재 85,000원(89년기준)으로 체격에 맞게 맞추는데, 현 옷은 여름에 입는다는 터진 경우는 현 잠수복을 오래내어 본드로 붙이면서 입는다. 일부측에서는 검정 고무 잠수복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꾸자고 제의하지만 흰 고무 잠수복이 비싸므로 해녀들은 흰색으로 바꾸어 입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물적삼

잠수할 때 물소중이 위에 입는 흰 무명옷으로 적삼이나 블라우스의 형태와 비슷하다. 우리나라에 블라우스가 여학생들에게 보급된 것이 1930년이기 때문에 물적삼이 해녀복으로 등장한 것은 1935년 이후로 추측된다. 그 이전에는 옷감이나 옷이 귀했기 때문에 물옷 하나만 입고 바다에서 작업했으며 추운 겨울에는 물옷 속에 내의류나 적삼을 입어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만 입었으며 이러한 모습을 1920년대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圖 3-4) 물적삼이 일반화된 것은 1960년대로 현재 80세 이상되는 노인들은 물적삼을 입지 않고 작업을 한 사람도 많았다. 이유는 물적삼을 입으면 물 속에서 불편하여 작업하기 힘들었으며 물적삼 만드는 경비와 시간과 노력에 비해 실용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육지로 출가한 사람이 많이 입은 것은 타항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멋을 부리고 싶었고 蔚山인 경우 물쇠기로 인해 따가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름에는 햇볕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보다 젊은 해녀들이 많이 입었다. 물적삼 형태는 마치 한복 적삼과 같이 보이나 물적삼은 한복 적삼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圖 3-16, 17) 한복 적삼은

여밌이 우밌인데 비해 물적삼은 블라우스와 같이 여밌게 되어 있다. 진동과 배래 부분은 한복 적삼은 곡선인데 비해 물적삼은 배래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적삼의 진동나비도 체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적삼의 진동 나비는 15~18 cm로 한복 적삼보다 5cm 정도가 짧다. 또한 네크라인과 앞단은 블라우스 형태로 둥근 목 들레 선에 깃과 섯이 없고 앞푼은 뒤푼과 똑같이 아밌질 되어 있어 앞 여밌 분이 없다. 단추 고리로 푼을 조절하지만 입었을 때는 앞 부분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복 적삼의 도련은 꺾어 박아서 처리하나 물적삼은 소맷부리와 도련에는 끈을 집어 넣어 여유분 없이 조여 물 속에서 훌렁거리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물적삼을 처음으로 만들어 입을 때는 소맷부리와 도련에 끈 처리를 하지 않아 무자맥질(잠수)할 때는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고 옷 길이가 등 위로 올라가서 불편하였다. 그래서 소맷부리와 도련에 끈 처리를 하게 되었고 다음에는 만들기 쉽게 끈 대신 고무줄로 바꾸었으나 신체에 너무 압박감을 주어 불편했기 때문에 소매에는 커프스를 아랫단에는 주름을 잡아 밀단을 붙여서 허리 들레에 거의 맞게 조절하였다. (圖 3-17) 물적삼은 몸에 맞아야 작업하기 좋기 때문에 여유가 없으며 무명은 물 속에서 질기고 몸에 밀착이 잘 되기 때문에 깃 광목을 양젯물에 하얗게 바래서 만들어 입었다. 검은 소중이에 흰 적삼은 산뜻하여 멋을 부리면서 입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는 점정 광목에 흰 실로 스티치를 놓으면서 물적삼을 만들어 입는 젊은이도 있었다. (圖3 -18)그러나 끈 고무 잠수복의 등장으로 오래 입지는 못했다.

3) 물수건

濟州島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물질하러 갈 때부터 물수건을 쓰고 간다. 이 물수건은 물에서는 햇빛을 가리는 모자로, 땀을 닦는 수건으로 그 역할이 다양하며 물질할 때 쓰면 머리가 흠어지는 것을 막으며 머리를 따뜻하게 해 준다. (圖 3-19)

서해안 백령도 근방에는 상어가 있어 가끔 상어가 나타날 때는 백령도 근처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에게 자기 키보다 서너배 긴 흰 천을 나누어 주어 발목에 묶어서 물질을 하게 한 적이 있었다. 상어는 해치기 전에 슬쩍 다가와서

키를 댄 다음 자기 키보다 큰 것은 해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⁴⁸⁾ 日本에서도 상어가 있는 지역의 海軍은 자기 키의 3~4배 되는 흰 끈을 허리에 묶고 물속에 들어 갔다가 상어가 나타나면 흰 끈을 풀다고 하였다. 그래서 흰적삼을 입고 흰 물수건을 쓰게 된 것은 상어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濟州바다에는 상어가 없어 잠수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하나 가끔 가을 바다에 “번적귀”라는 상어가 나타날 때면 두 자나 되는 긴 물수건을 묶었다고 한다. 그러나 바다 멀리 나가지 않으면 상어의 피해는 없다고 한다. 물수건은 나비 30cm, 길이 80cm 크기로 깃 광복을 하얗게 바래어 만들었으나 1900년대는 이 정도의 천도 구하기 힘들어 물수건을 쓰지 않고 작업을 하여 쪽진 머리가 해초류에 걸렸다는 말을 할머니로부터 들었다고 김 창희 노인 (90세)은 말한다. 그 다음은 임댕걸이 (이멍걸이)란 머리 띠로 머리만 묶었고 1910년 후반부터 물수건을 사용했는데 1960년대는 日本으로 육지로 출가했던 해녀의 보급으로 물수건 대신 까부리를 쓰게 되었다. (圖 3-20, 21) 까부리는 머리에서 뒷목덜미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모자로 물수건보다 쓰기가 간편하고 더 따뜻하고 양 뺨을 덮을 수 있어 불턱에서 햇빛을 가리는데 더 좋다고 한다. 양쪽 귀 높이에 구멍이 뚫어져 있으며 그 구멍으로부터 물이 빠져 나온다. 멧을 부리는 젊은이들은 만들어서 썼으나 노인들은 만들기가 귀찮아서 계속 물수건을 사용했다.

2. 악세사리

濟州島 해녀들이 잠수할 때 사용하는 부속품으로는 눈, 태왁, 망사리, 빗창, 정계호미, 골각지, 물구덕 (송동 바구리) 등이 있다. 이러한 도구는 고무 잠수복을 입는 오늘날에도 모양이나 성능이 개선되지 않은 채 재래식 형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1) 눈(水鏡)

물 속에서 해녀의 눈 역할을 하기 때문에 濟州島에서는 <눈>이라고 일컫는

48) 한림화·김수남, 1987, pp. 60-61.

다. “해녀 연구”에서 강 대원씨는 제주에 물안경이 생긴 것은 1820년경부터라고 하나 口傳에 의하면 1900년대에도 대부분 눈을 쓰지 않은 채 작업을 하여도 물건이 많아서 맨손으로 더듬더듬 만지면서 소라, 전복, 미역을 충분히 채취할 수 있었다고 한다. 濟州島에서 해녀들이 물안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10년경 물수건을 쓰기 시작한 시기와 같다고 본다. 물안경을 쓰려면 고무줄의 압박감 때문에 맨 살갓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안경과 물수건은 상호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눈에는 작은 눈과 큰 눈이 있는데 작은 눈(족은 눈, 족세 눈)은 안경알이 2개인 쌍안경이고 큰 눈은 左·右의 두 눈을 1개인 안경알로 덮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작은 눈은 엄쟁이 눈과 췌눈이 있는데 구입을 하려면 구좌면 한동리에 가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물안경을 구입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췌눈은 모든 이의 안면에 맞도록 정교하게 제작되었고 수심 깊은 수압에서도 해저가 맑게 보인 반면 엄쟁이 눈은 수심 깊은 해저에서 작업할 때 視界가 시원치 못해 불편했다고 한다. 작은 눈에서 큰 눈으로 改變되는 사이에 공기주머니가 달린 이른바 「후쌍 안경」이라는 日本製가 도입되었으나 췌눈이 日本製 안경보다 더 맑고 일하기가 편했다고 한다. 이러한 쌍안경식 눈이 1개의 큰 눈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30년경 육지부에 출가했던 해녀들이 구입하여 쓰기 시작했으며 濟州島 해녀들에게 일반화된 것은 1960년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물안경의 형태 변화는 복식의 연대와도 관계된다. (圖 3-5)는 1940년 후반에 찍은 것인데 모두 흰 물웃과 흰 적삼을 입고 오른 손에는 정계 호미 왼손에는 태왁과 망사리를 들고 있는 포즈이다. 2명은 큰 눈을 쓰고 있어 작은 눈이 큰 눈으로 대체되는 시기로 짐작된다.

2) 태왁

해녀들이 물질할 때 몸을 가벼이 띄워 주기도 하고 바닷속으로 들어 갔을 때는 채취한 해물들을 물 위에 띄워 보관해 주기도 하는 ‘뒤웅박’(두렁박)을 말한다. 이 태왁에 의지하여 해녀는 바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복이나 소라, 미역 등을 채취하여 고기를 쏘아 잡는 일까지를 한다. 태왁 밑에는 채취물을 넣어 두는 망사리라는 그물 주머니를 매달아 놓는다. 높이 25cm 내외 둘레의 직경 90cm 내외가 되는 박에 끈으로 엮어 매는데 끈의 재료는 사람의 머리털

→ 미 → 신서란 → 나일론 끈의 순서로 변천했다. <미>란 참억새의 꽃이 채 피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發泡 스티올렙 태왁을 흔히 <나일론 태왁>이라 일컫는 데 색채가 있는 형질으로 태왁을 싸서 이 색채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을 배정 받는다.⁴⁹⁾

3) 망사리(망시리, 흥사리)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넣는 영성하게 짜여 진 그물로 된 주머니인데 태왁 밑에 달려 있다. 윗 부분은 트여 있고 <도렛줄>등으로 된 원형의 목재 <어음>이 있어서 그물이 이에 묶이어 길쭉이 늘어뜨리게 되어 있다. 윗쪽 지름이 40~50cm 길이가 70cm 내외의 원통형인데 아랫쪽이 더 넓다. 망사리의 재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은 나일론 실로 만들어졌지만 「미」라는 나무 껍질에서 신서란, 1917년 경에는 남총나무 껍질로 노끈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1927년 경부터 처음으로 실로 떠서 망사리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러므로 맨처음 것은 미망사리 → 신서란 → 남총 → 그물망사리 → 나일론 망사리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4) 빗창 (圖 3-22)

전북 따는 도구로 길이 30cm, 너비 4cm 정도의 납작한 쇠붙이며 끝이 날카로운 유선형이다. 한쪽 자루 끝은 원형으로 말아져서 그 구멍에 손잡이 끈이 달려 있다. 그 손잡이 끈은 사람의 머리털 → 나일론끈 → 고무줄로 변천되었다. 끝부분에 달린 끈을 손에 감아 쥐고 전복이 바위에 찰싹 붙어 있는 밑으로 이 빗창을 집어 넣어 위로 채치면 전복이 바위에서 떨어진다. 가끔 전복은 쉬 메지 못하고 손목에 감긴 끈도 풀리지를 않아서 질식하여 숨지는 경우도 있다. 빗창은 물웃 오른쪽 뒤끈쪽에 고리를 만들어 휴대하기도 하나 불편하여 대개는 허리 뒷쪽에 허리 끈으로 휘어 감아 휴대한다. (圖 3-25)

5) 정계호미 (圖 3-23)

해초류를 캐는 낚으로서 농사할 때 쓰이는 호미와 비슷하다. 정계호미 길이

49) 김영돈, 1986, pp. 187-197.

는 20cm로 약간 길고 앞쪽하며 바닷물 속에서도 쇠붙이 날이 자루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날이 있는 쇠붙이를 나무 자루 바깥에 철사로 단단하게 잡아 묶어 있다.

6) 골각지 (圖 3-24)

성게, 문어 따위를 채취할 때 쓰이는 기구로 밭에서 짐을 매는 골갱이 (濟州島 호미)와 비슷하다. 해녀 도구인 골각지는 30cm 내외의 가느다란 쇠붙이를 12cm 내외의 나무 자루에 지르고 쇠붙이 끄트머리는 더욱 가늘고 ㄱ字로 꼬부라지게 되어 있다.

7) 물구덕 (송동 바구리)

물웃과 바다에서 나온 다음 몸을 쪼이는 썰감이나 그 밖의 기구를 넣는 해녀 바구니로, 대나무로 직경 40cm, 높이 26cm 크기의 타원으로 짜여져 있다. 물질하러 갈 때는 이 구덕에 온갖 기구를 넣고 태왁으로 덮어서 등에 지고 간다. 바다에서는 자기 소지품을 관리하는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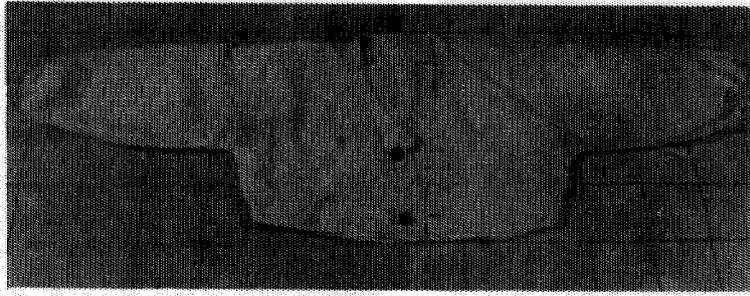


圖 3-16. 한복정삼(여름이 우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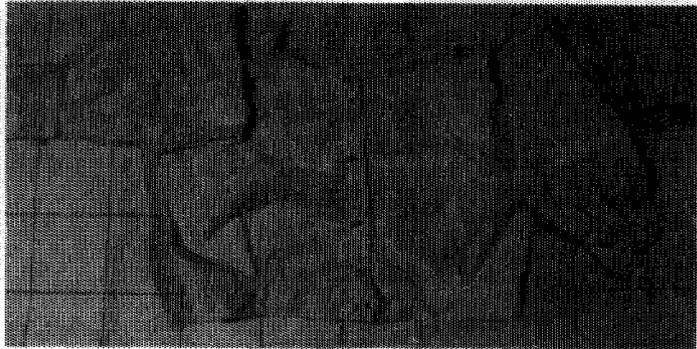


圖 3-17. 물적삼(커프스와 아랫단을 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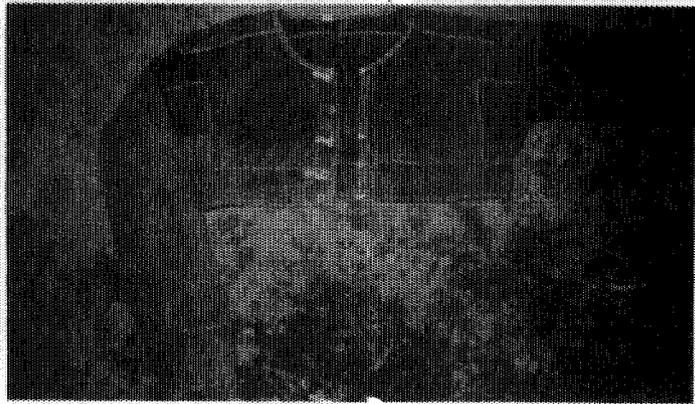


圖 3-18. 검은 바탕에 흰색의 상감무늬한 물적삼. 「제주민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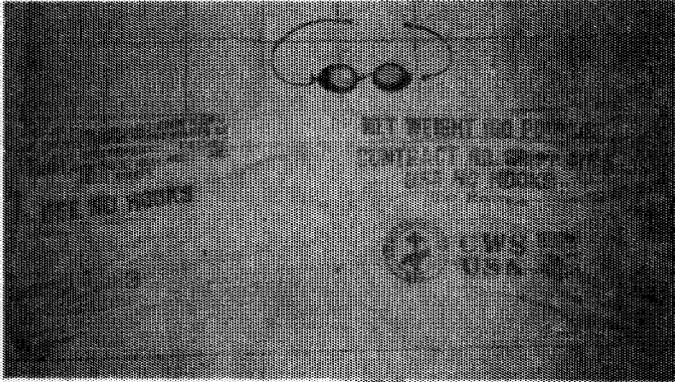


圖 3-19. 쪽새눈과 밀가루부대로 만든 물수건



圖 3-20. 가부리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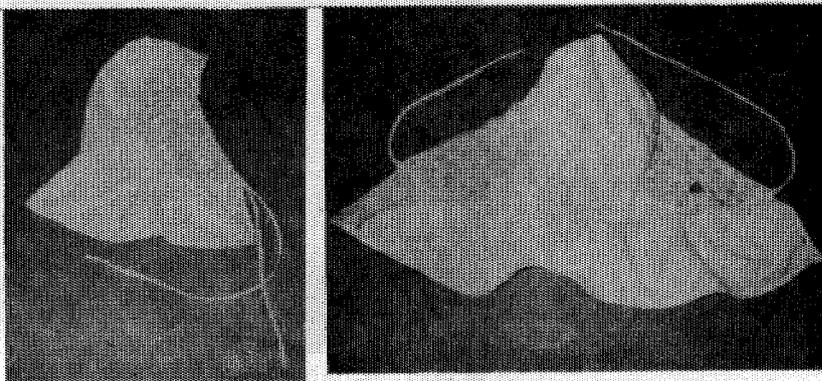


圖 3-21. 꽃무늬로 배색시킨 가부리의 앞면(좌)과 후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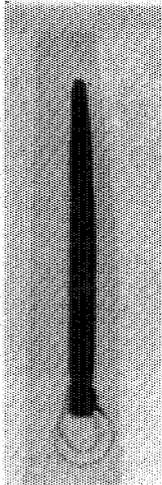


圖 3-22. 빗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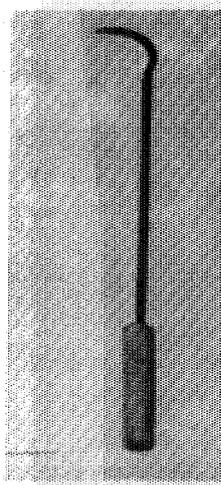


圖 3-24. 골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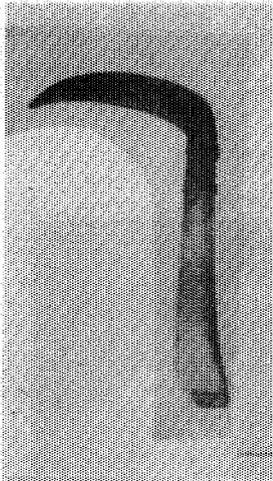


圖 3-23. 정계호미



圖 3-25. 등바대에 빗창을 꿰고 수종작업을 하는 장면, 「해녀연구」

V. 遺品の實例 및 製作方法

1. 유품의 실측

本 論文에서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유품 중에서 소중이 6점, 물소중이 21점, 물적삼 2점을 도식화하여 형태를 비교해 보고 이들 유품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1) 소중이 실측도

① 소중이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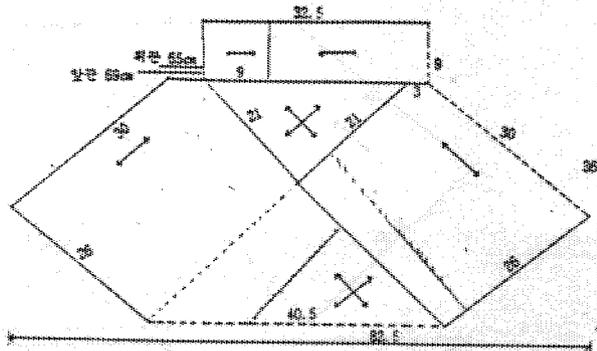


圖 4-1 濟州民俗博物館

② 소중이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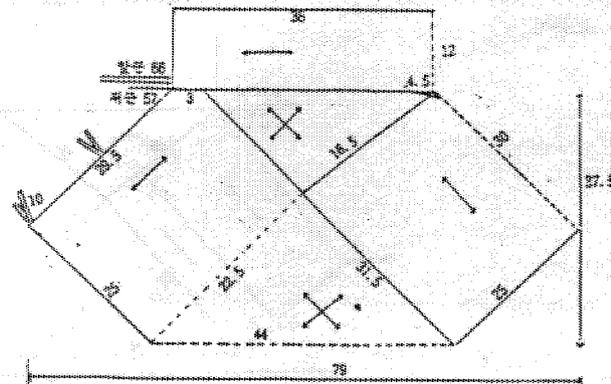


圖 4-2 北濟州郡 咸德

③ 소중이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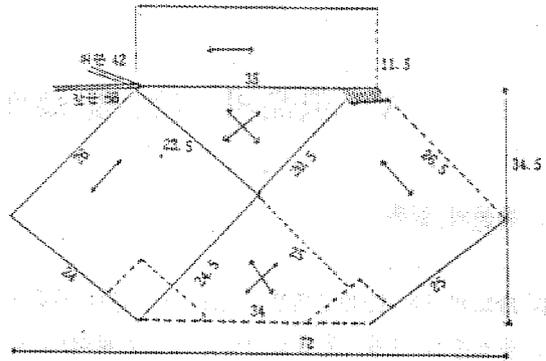


圖 4-3 南濟州郡 城山

④ 소중이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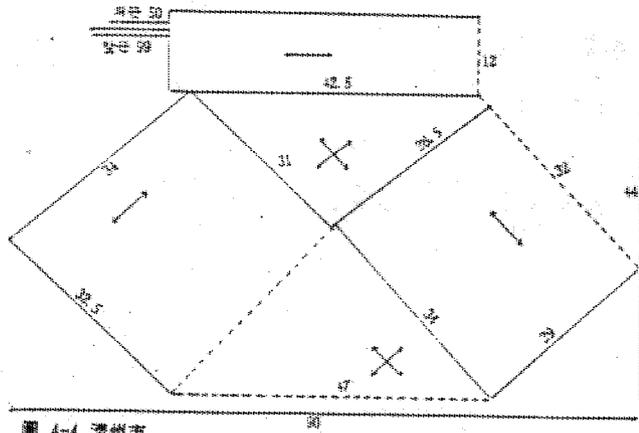


圖 4-4 濟州市

⑤ 소중이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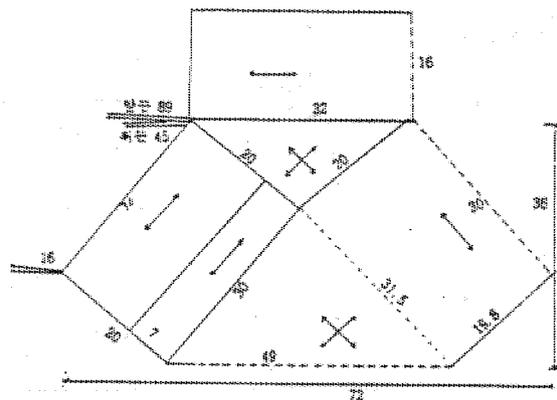


圖 4-5. 北濟州郡 渾月

濟州島 海女服 研究

㉔ 소중이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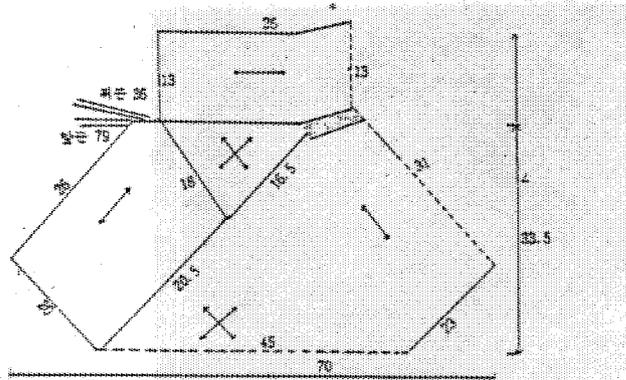


圖 4-6. 濟州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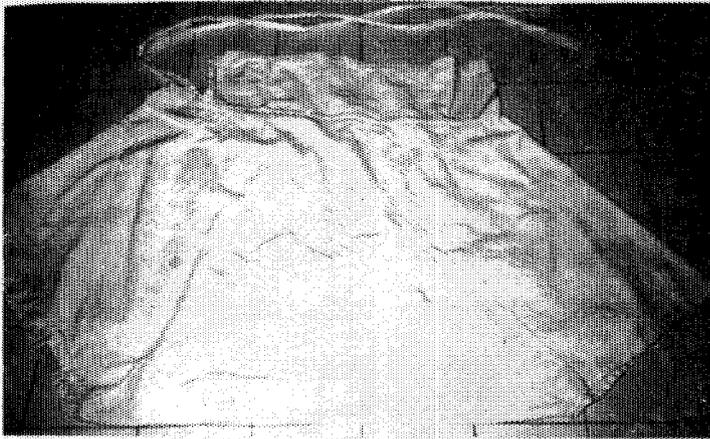


圖 4-1. 소중이 I



圖 4-2. 소중이 II



圖 4-3. 소종이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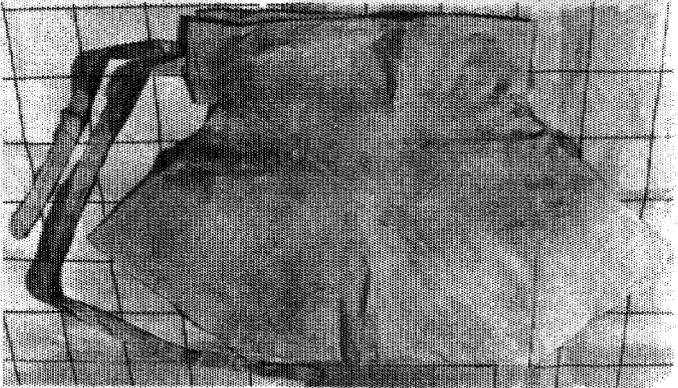


圖 4-4. 소종이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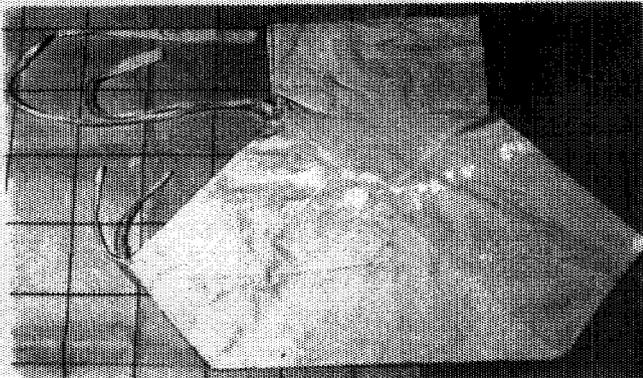


圖 4-5. 소종이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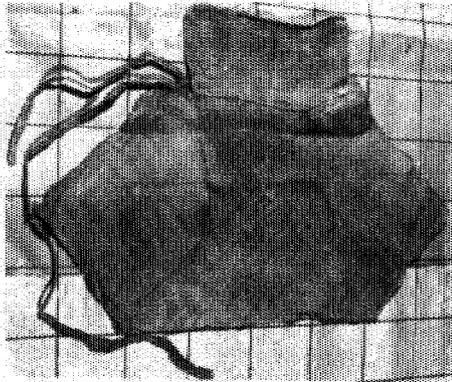


圖 4-8. 소롱이 V

소롱이를 도식화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유품의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표 2는 유품의 치수를 비교하였다.

〈표1〉 소롱이 유품의 특징

유품 번호	옷 감	색	바느질법	특 징
I	부 널	흰	손 바느질	○ 조각 행경을 간질질로 이음 ○ 허리가 부추하되 옆이 넓어짐
II	부 널	흰	재 봉 물	○ 옆 트임에 끈을 달아 여며지게 하였으며 삼세하게 바느질이 되어 있다.
III	깃 광 무	흰	재 봉 물	가랭이 부분에 굴 바대를 댄 것이 특징임 옆 바대를 대어 견고하게 함
IV	깃 광 무	흰	재 봉 물	허리 치수를 크게 하여 잘 여며지게 하였다 끈의 위치가 특이함
V	광 무	흰	재 봉 물	허리너비가 넓어 짧은 사람이 입었던 옷으 로 바느질이 손색없다.
VI	삼 패	누 런	재 봉 물	밑이 한절이되 옆바대가 많이 헤어졌음. 보치한 다른 조각을 댄

〈표2〉 소중이 치수비교

(단위 : cm)

유번	품호	소중이 폭	밑 길	소중이굴열선		굴 너 비		허리 리비	소중이 앞부분
				오른쪽	왼쪽	죽은굴	산 굴		
I		82.5	40.5	30	30	26	26	9	36
II		79	44	29.5	30	25	25	12	37.5
III		72	34	26	26.5	24	25	11.5	34.5
IV		90	47	34	32	32.5	29	12	44
V		72	49	30	30	20	19.8	16	36
VI		70	45	26	31	20	23	13	33.5

이 소중이들은 女人들의 가장 속에 입는 下衣로 물소중이 원형이다. 물소중이에 비해 허리너비가 좁고 매천이 없으며, 대부분 옆바대가 없다. 또한 트임에 벨모작 단추 없이 허리 끈으로만 여미게 되어 있으나 간혹 한 곳에 끈으로 또는 단추로 여미게 되어 단단하게 처리한 소중이도 있다. 삼베로 만든 소중이는 여름에 입었으며, 그외는 대부분 광목으로 만들어 입었다. 소중이는 물소중이와 만드는 방법이 거의 같으나, 굴너비를 정할 때 물소중이는 산굴보다 죽은굴 너비를 더 넓게 잡는 것이 보기 좋은 옷이 되지만, 소중이는 속에 입기 때문 산굴과 죽은굴 너비를 같게 하였다.

2. 물소중이 실측도

① 물소중이 I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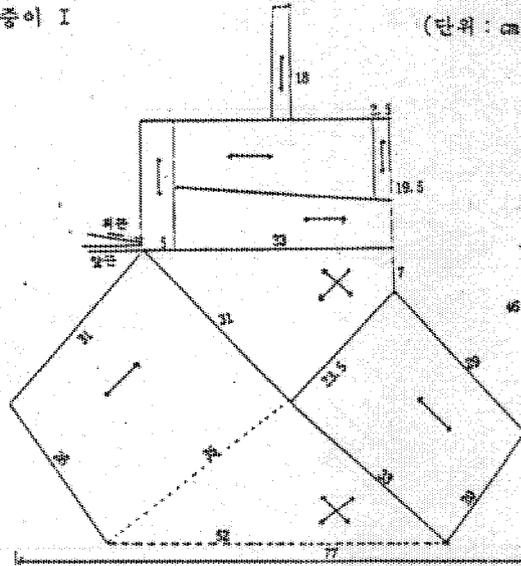


圖 4-7 北濟州郡 蓮月

② 물소중이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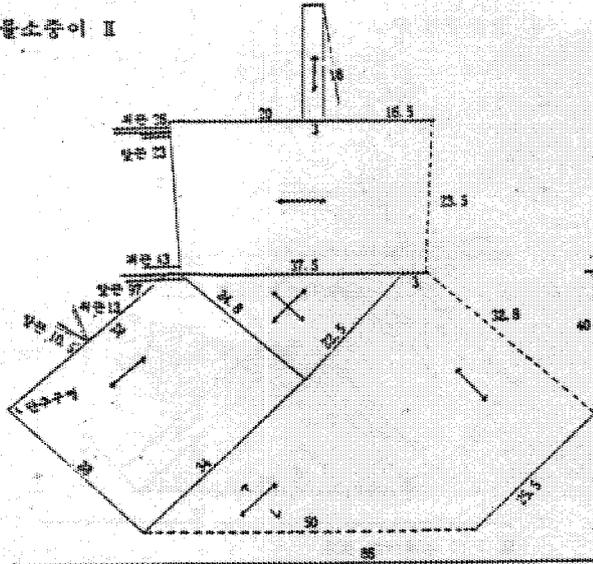


圖 4-8 南濟州郡 表善

③ 물소궁이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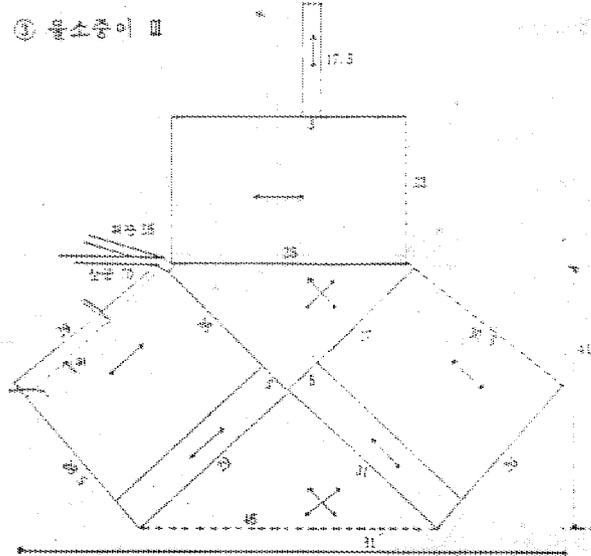


圖 4-9 南濱州郡 後卷

④ 물소궁이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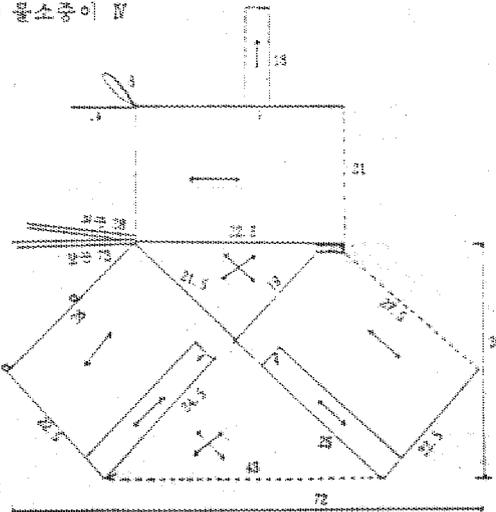


圖 4-10 南濱州郡 前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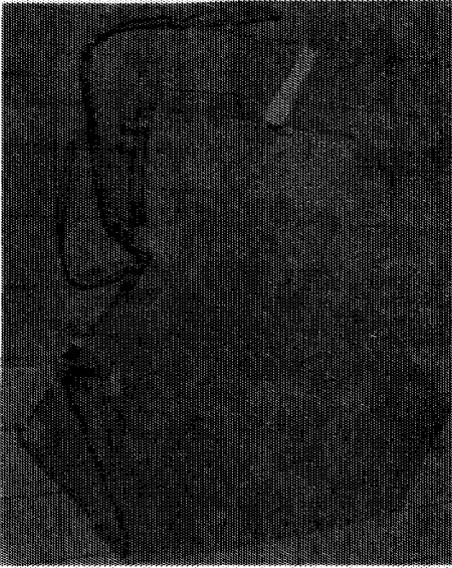


圖 4-7. 물소종이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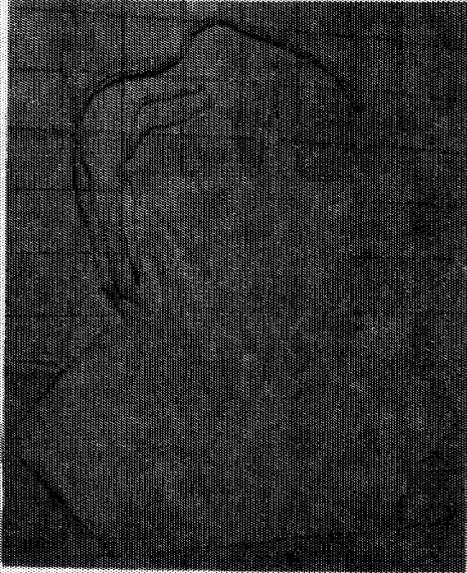


圖 4-8. 물소종이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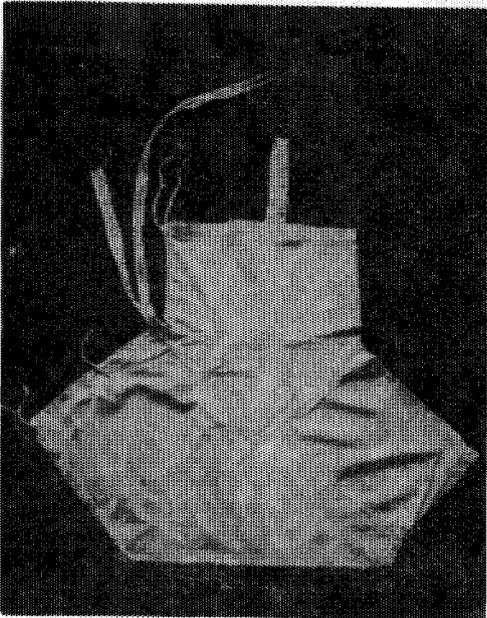


圖 4-9. 물소종이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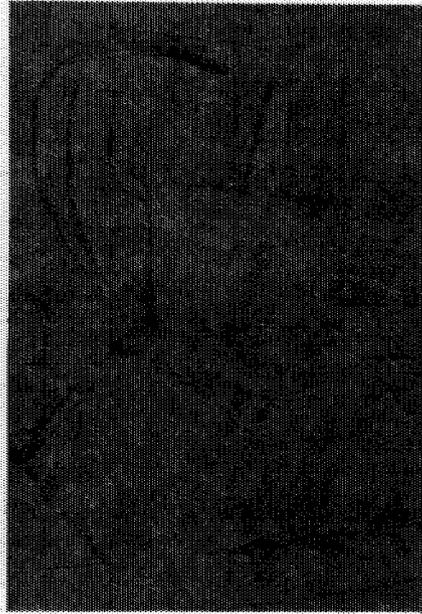


圖 4-10. 물소종이 IV

① 물소중이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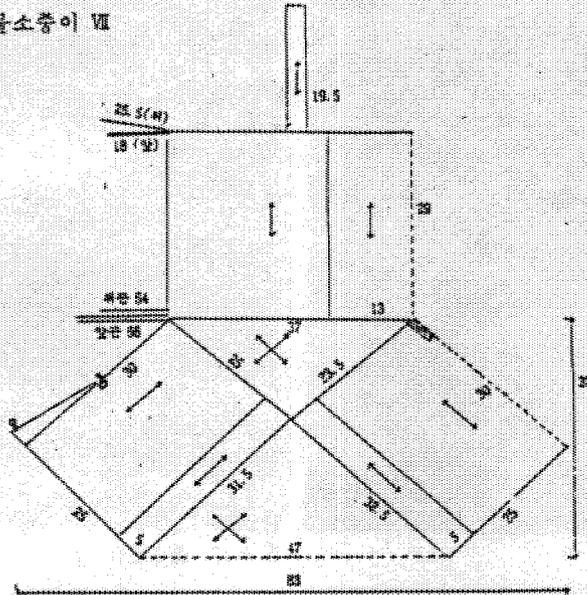


圖 4-13 南濟州郡 城山

② 물소중이 V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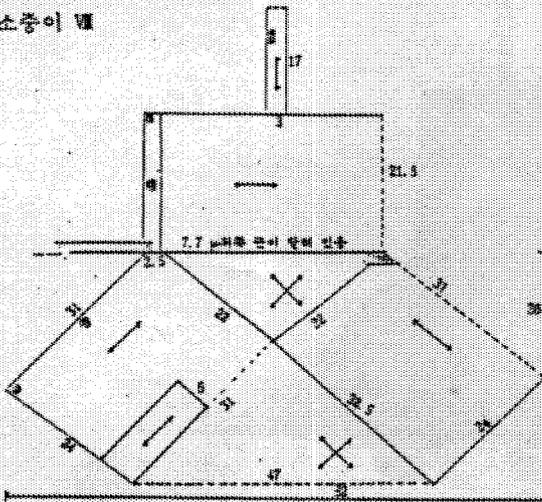


圖 4-14 濟州民俗博物館



圖 4-11. 물소종이 V



圖 4-12. 물소종이 VI



圖 4-13. 물소종이 VII



圖 4-14. 물소종이 VIII

濟州島 海女服 研究

㉑ 물소중이 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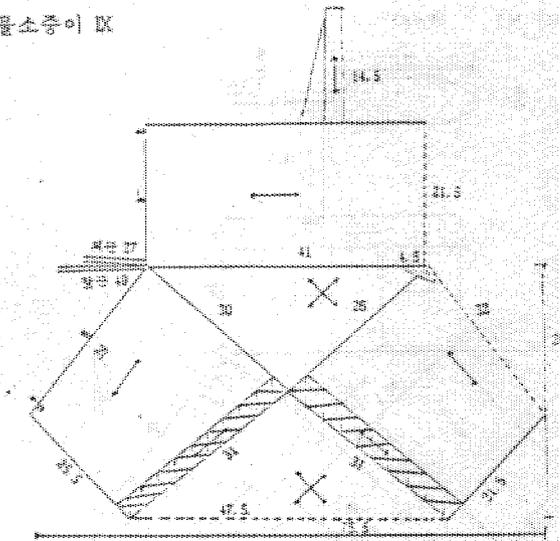


圖 4-15 南濟州郡 大靜

㉒ 물소중이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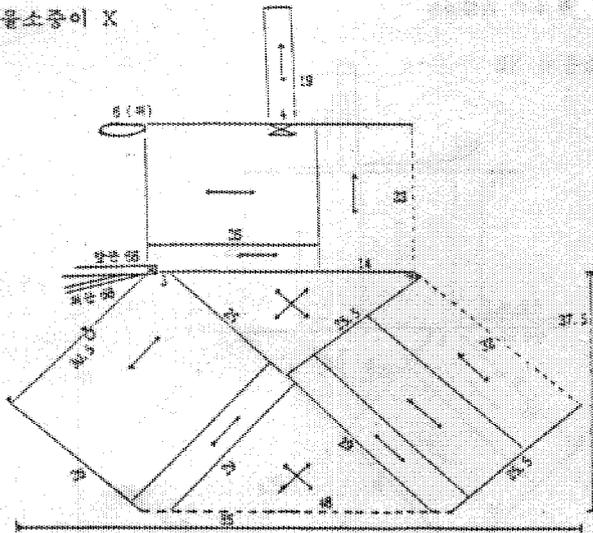


圖 4-16 南濟州郡 表春

㉑ 물소중이 XI (동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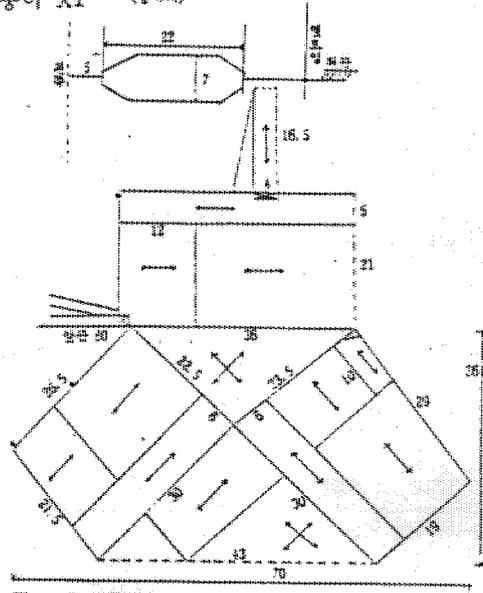


圖 4-17 西歸浦市

㉒ 물소중이 X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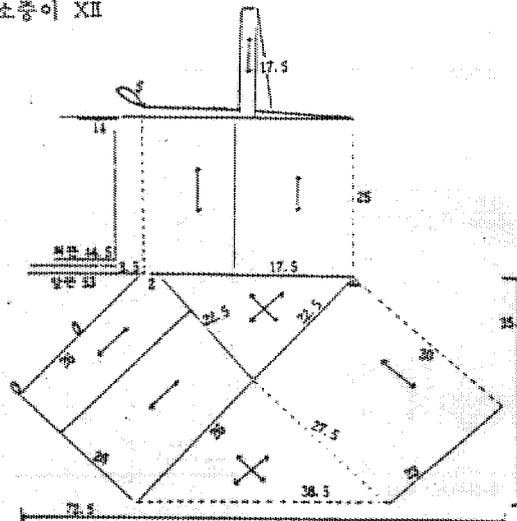


圖 4-18 濟州道 民俗自然史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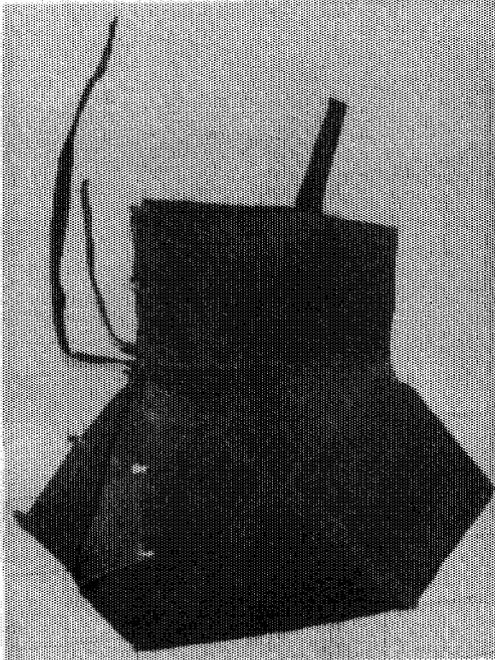


圖 4-15. 물소중이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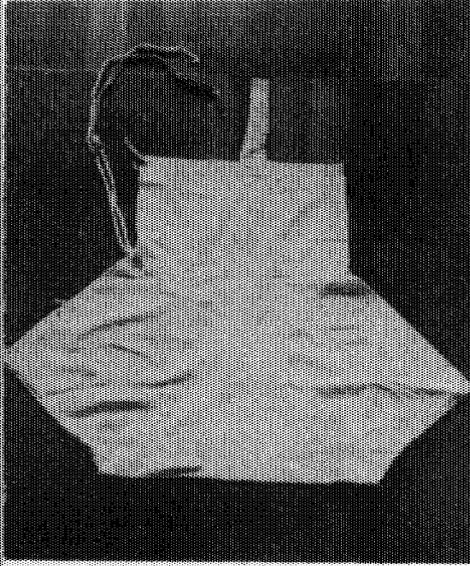


圖 4-16. 물소중이 X



圖 4-17. 물소중이 XI



圖 4-18. 물소중이 XII

㉑ 골조공이 X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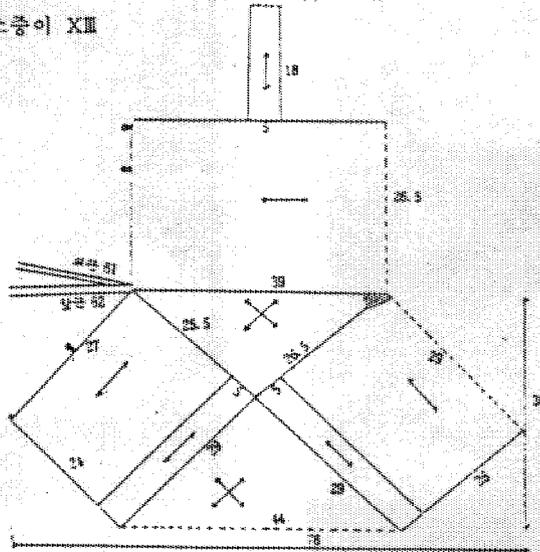


圖 4-19 北濟州郡 北村

㉒ 골조공이 X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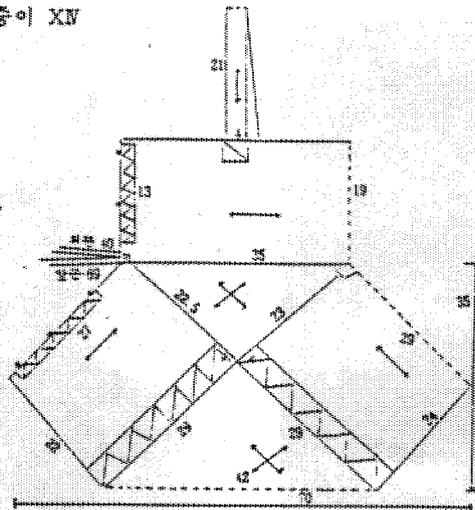


圖 4-20 南濟州郡 城山

濟州島 海女服 研究

㉔ 물소중이 X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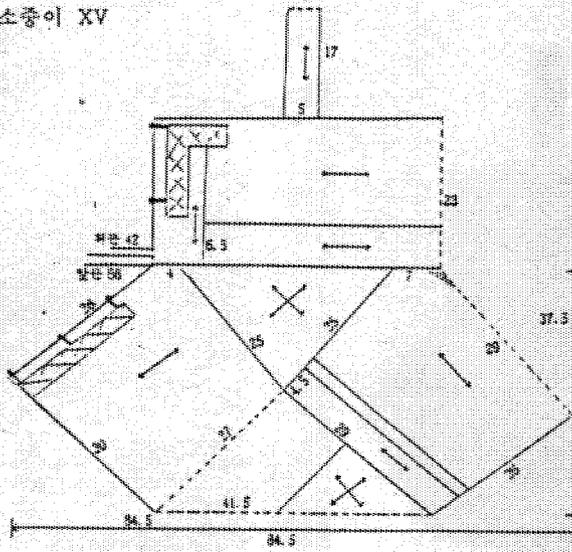


圖 4-21 濟州道 民俗自然史博物館

㉕ 물소중이 X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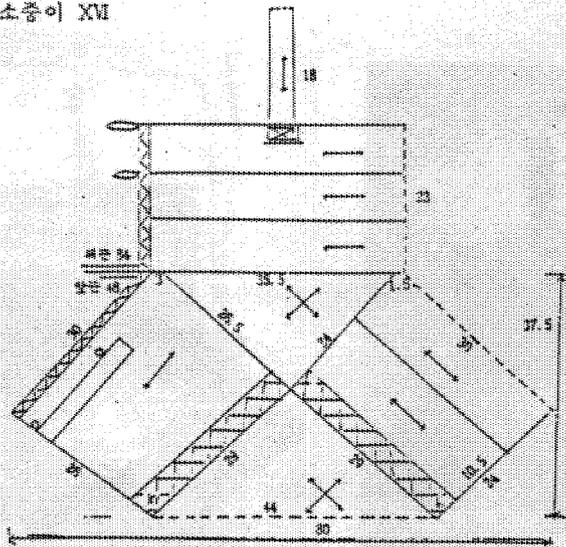


圖 4-22 濟州道 民俗自然史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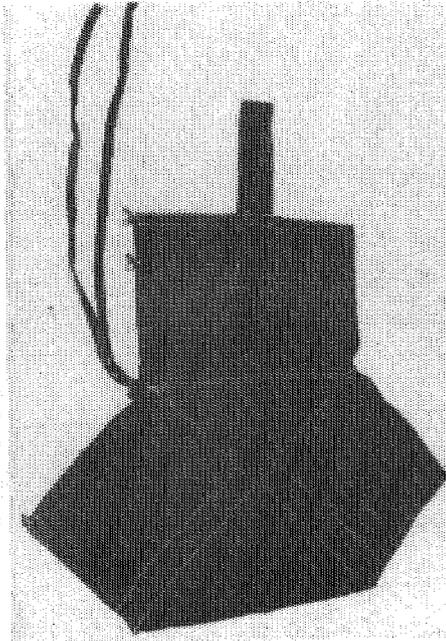


圖 4-19. 물소종이 X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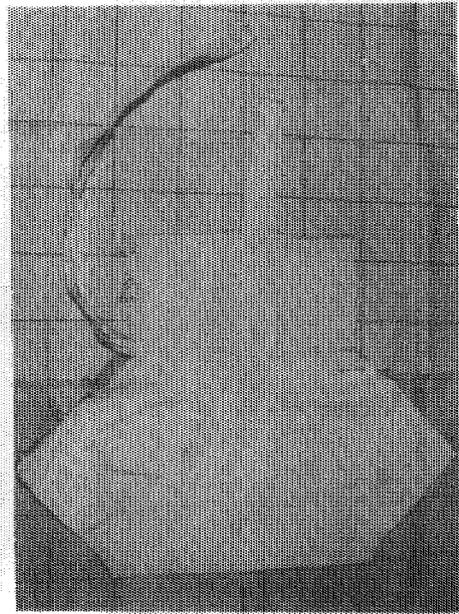


圖 4-20. 물소종이 X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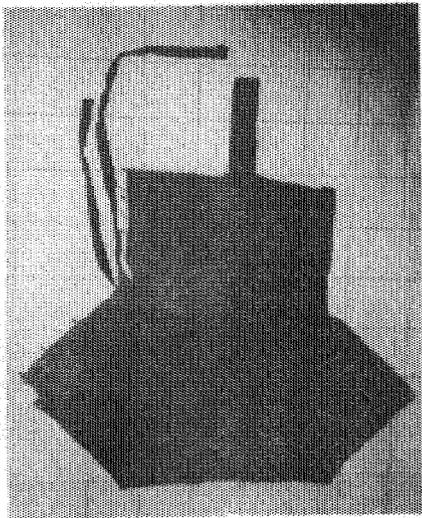


圖 4-21. 물소종이 X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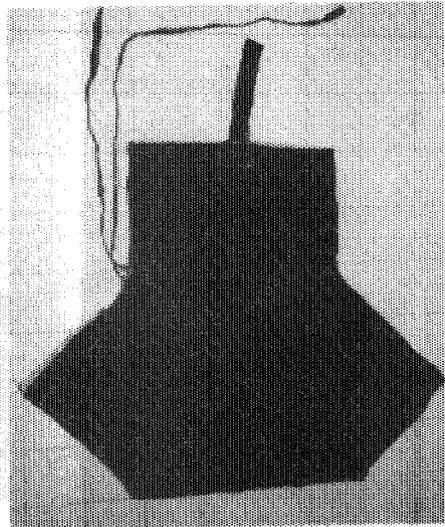


圖 4-22. 물소종이 XVI

濟州島 海女服 研究

㉑ 물소중이 X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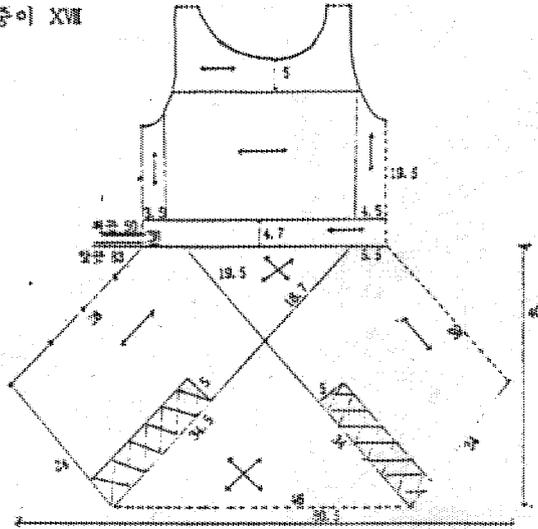


圖 4-23 濟州民俗博物館

㉒ 물소중이 X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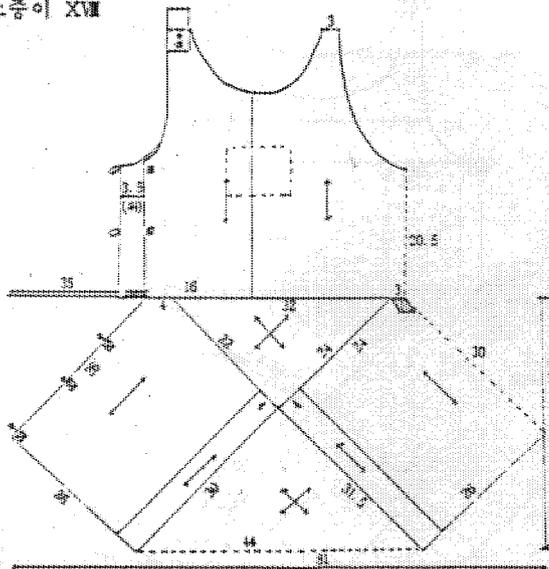


圖 4-24 北濟州郡 翰林

㉔ 물소종이 X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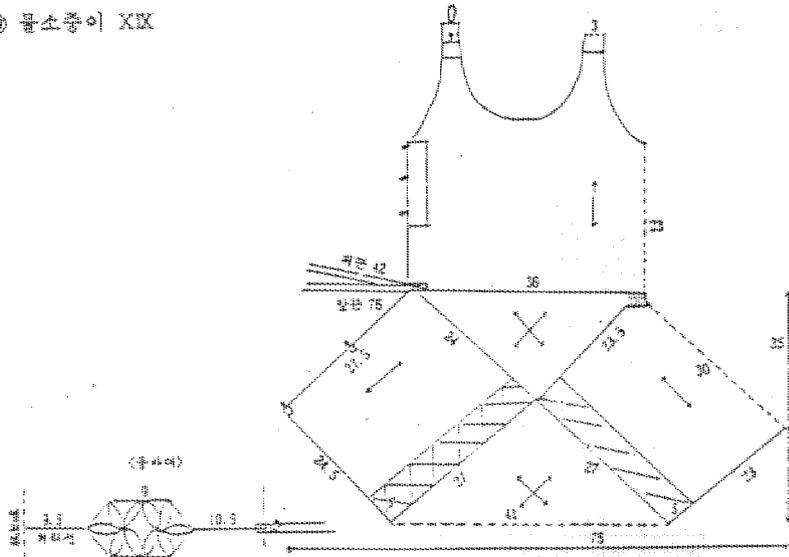


圖 4-25 南濟州郡 城山

㉕ 물소종이 X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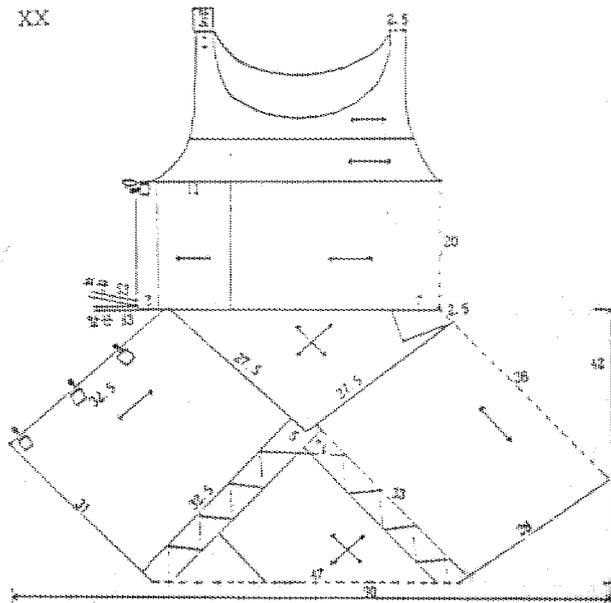


圖 4-26 北濟州郡 咸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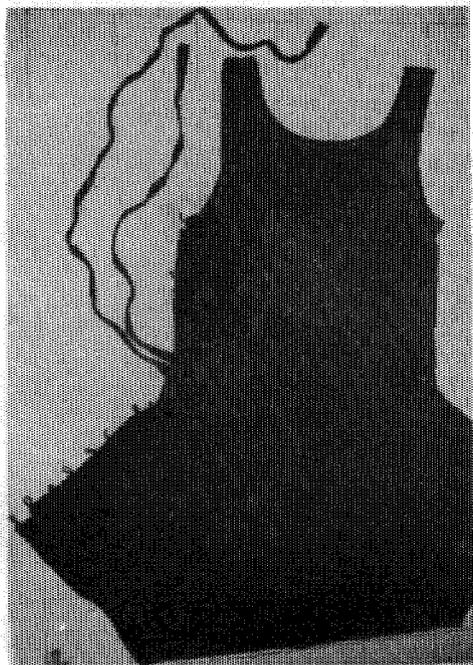


圖 4-23. 물소중이 X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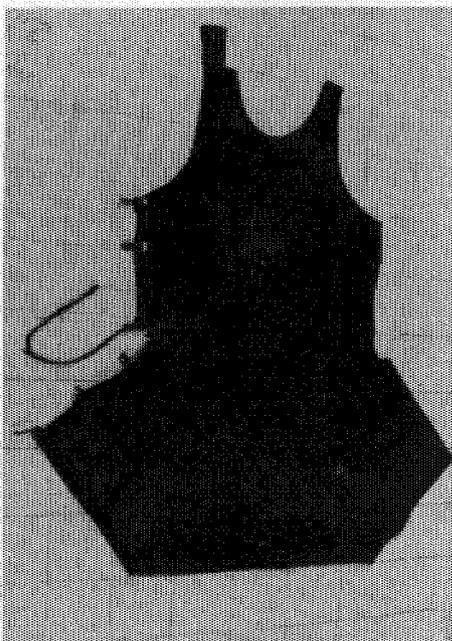


圖 4-24. 물소중이 XV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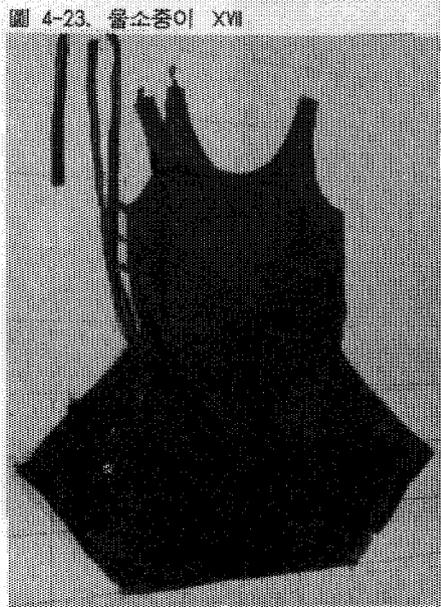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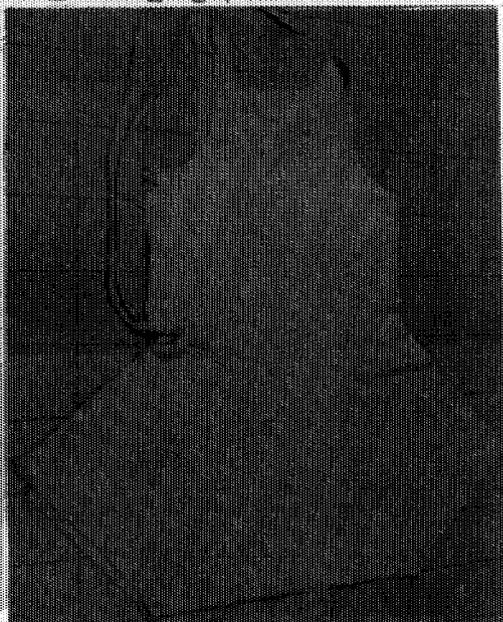


圖 4-25. 물소중이 XIX



-III- 圖 4-26 물소중이 XX

3 褌 笠 袴

① 褌 笠 袴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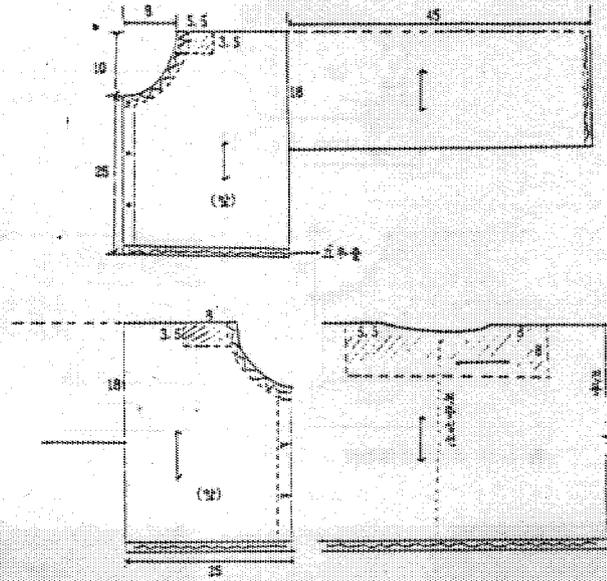


圖 4-28 北濟州郡 咸德



圖 4-28. 물적삼 I

② 褙子衫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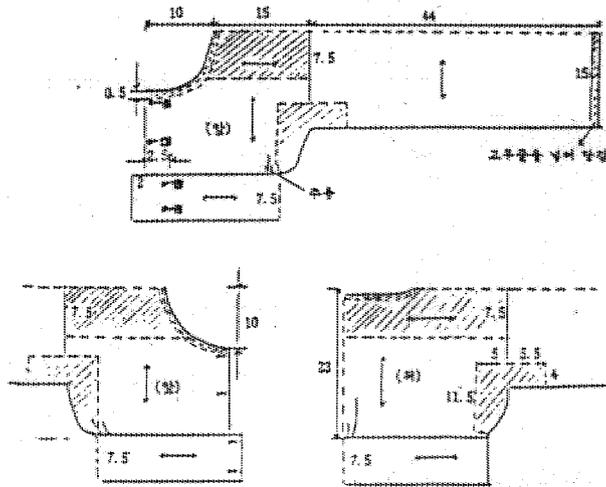


圖 4-29 濟州民俗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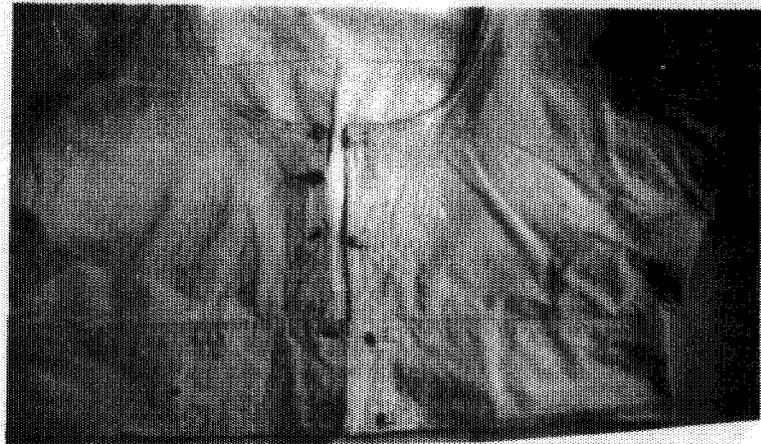


圖 4-29. 褙子衫 II

濟州島 海女服 研究

※ 물소중이를 도식화하여 표3과 같이 유품의 치수를 비교하였으며 표4는 유품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표3> 물소중이 치수 비교

(단위 : cm)

유 품 번 호	소중이 폭	밑 밑	소중이굴엿선		굴 너 비		허 리 너 비	매 친	소중이 아 랫 부 분
			오른쪽	왼 쪽	죽은굴	산 굴			
I	77	52	31	36	26	20	19.5	18	46
II	86	50	32	32.8	28	25.5	23.5	18	40
III	81	46	29	30.5	28.5	26	23	17.5	41
IV	72	43	28	27.5	22.5	22.5	21	18	36
V	81	50	30	31	24	23	23	19	34
VI	86	50	30.5	33	23	23	23	21	37.5
VII	83	47	30	30	25	25	29	19.5	37
VIII	82	47	31	31	24	24	21.5	17	36
IX	75.5	47.5	29	32	25.5	21.5	21.5	14.5	39
X	85	48	30.5	32	26	25.5	23	19	37.5
X I	70	43	26.5	29	21.5	19	21	16.5	36
X II	72.5	38.5	26	30	26	23	25	17.5	35
X III	76	44	27	29	24	25	26.5	18	36
X IV	70	42	27	29	22	24	19	21	35
X V	84.5	41.5	28	29	30	26	23	17	37.5
X VI	80	44	30	30	26	24	23	18	37.5
X VII	80.5	46	28	28	24	24	19.5	17	40
X VIII	81	44	26	30	26	26	20.5	21.5	39
X IX	75	41	27.5	30	24.5	23	23	17	35
X X	90	47	32.5	36	31	28	20	23	42
X X I	81.5	50	30	31	24	26.5	25	없음	37

<표4> 물소중이 유품의 특징

유품 번호	옷 감	색	바느질법	유 품 의 특 징
I	미 녕	흰	손바느질	· 소중이 중에서 유일하게 왼쪽 옆술기가 있음 · 內衣를 물소중이로 변형시킴
II	광 목	흰	재 봉 틀	· 밑이 한겹으로 되어 있으며 여밈을 끈으로 함
III	광 목	흰	재 봉 틀	· 앞이 뒤보다 넓어 겹쳐지며, 옆바대가 없다
IV	깃광복	흰	재 봉 틀	· 밑이 한겹이며 단추가 뒤쪽에 있음 · 찢김은 고리로 처리하여 품을 넓게 하였다 · 노인이 물 맞으러 갈 때 입을
V	일 재 포플린	흰	재 봉 틀	· 매친, 옆바대, 밑바대에 흰실로 장식 · 밑바대가 중간까지만 되어있어 뒤쪽 밑바대가 뜯어져 있음
VI	깃광목	흰	손바느질	· 단추가 뒤쪽에 있음 · 찢김을 고리로 하여 옆품을 9.5cm 조절
VII	광 목	검정	재 봉 틀	· 덧단을 붙여 폭을 넓힘 · 허리나비가 넓어 짧은이가 입었으며 허리나 비가 넓으면 이어야만 한다.
VIII	광 목	흰	재 봉 틀	· 매친에 형질을 붙여 장식했다. · 뒤끈이 옆단에서 7.7cm 떨어진 위치에 달아 있다.
IX	광 목	검정	재 봉 틀	· 매친다는 위치가 다르다 · 단추, 밑바대, 허리 등 흰실로 장식
X	광 목	흰	재 봉 틀	· 조각을 이어 만든 옷으로 바느질이 빈틈없 이 되어있다.
XI	광 목	흰	재 봉 틀	· 소중이 부분에는 검정실로 상침했으나 지저 분함 · 단추, 단추고리는 검정실로 장식 · 등바대가 있으며 물질을 잘하는 해너옷이다.

濟州島 海女服 研究

유품 번호	옷 감	색	바느질법	유 품 의 특 징
X II	광 목	검정	재봉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이 작아 앞허리 옆단에서 뒷면보다 3.5cm 넓게 함 · 단추고리로 품을 연장시킴
X III	광 목	검정	재봉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친의 위치가 잘못됨 · 현실로 바느질이 되어 있으며 단추고리도 현실로 장식함
X IV	광 목	흰	재봉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다가 품이 적어 단추고리에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 길이를 연장시킴 · 옆바대, 밑바대 흰실로 장식
X V	광 목	검정	재봉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추를 덧단으로 달아 견고하면서 장식의 효과를 냄 · 조각천을 최대한 활용함
X VI	광 목	검정	재봉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너비에 절개선을 이용하여 멋을 부림 · 단추고리는 노끈으로 하고, 뒷단추도 덧단을 대어 아주 정성을 들인 옷 · 옆단 안쪽에 푸른천을 대어 멋을 부림
X VII	광 목	검정	재봉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 말이 천이 부족하여 조각천을 활용했으며 여밈이 12품으로 되어 있어 단단하게 만들어진 옷
X VIII	광 목	검정	재봉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다가 오른쪽허리 옆단을 내었기 때문에 원래 옷감색이 하얗게 보임 · 앞가슴, 뒷목둘레선, 뒤끈다는 곳이 헤어짐
X IX	광 목	검정	재봉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실로 바느질 되어 있음 · 등바대가 대여 있고 앞허리 옆단이 뒷면보다 5.5cm 나와 있다.
X X	광 목	흰	재봉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친이 달려있던 해너복을 조끼허리로 개조한 것, 앞허리 옆단을 3cm 더 붙임 · 밑바대까지 흰실로 상침함
X X I	삼 베	누런	재봉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친이 없으며 바닷가에서만 입다가 잠수할 때에는 물옷으로 갈아입음, 호상옷으로 준비된 옷

물소증이 부분별 치수는 체격에 따라서 변동은 있지만 지역적·시대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폭의 여유분이 70~90cm이므로 활동적이며 옷의 길이는 허리선에서 25~32cm 내려온 위치다. 허리너비는 20~23cm가 보통이나 노인들은 허리너비를 적게 하였다. 만약 소증이 아랫부분 길이가 길면 허리너비와 매치의 길이가 짧아지며 소증이 아랫부분이 짧으면 허리너비나 매치의 길이가 길어진다. 죽은굴너비와 산굴의 너비가 같거나 죽은굴너비가 산굴너비보다 넓어야 마름질이 잘된 옷이라고 볼 수 있다.

물적삼을 도식화하여 표5와 같이 정리하여 유품의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표6은 유품의 치수를 비교하였다.

〈표5〉 물적삼 유품의 특징

유품번호	옷 감	색	바느질법	유 품 의 특 징
I	포플린	흰	재봉틀	· 소맷부리와 도련에 고무줄을 넣음 · 걸바대가 없으며 셔츠단추를 달았다
II	깃광목	흰	재봉틀	· 소맷부리에는 고무줄을 넣었으며 아랫단에는 덧단을 댔 · 벌모작 단추로 처리

〈표6〉 물적삼 치수비교

(단위 : cm)

유품번호	품	적삼길이	뒷 고 대	진동너비	소매길이
I	50	26	16	18	45
II	50	30.5	20	15	44

물적삼 I은 옷길이가 짧아 한복적삼과 비슷한 형태로 보이며 물적삼 II는 옷길이가 길어 블라우스 형태와 비슷하다. 소맷부리와 도련에 고무줄로 처리하던 것이 점차 소매는 커프스로 아랫 단에는 덧단을 대었으며 벌모작 단추 대신 셔츠 단추도 이용되었다. 물적삼의 품, 진동너비, 소매길이는 체격에 관계없이 비슷한 치수에 만들어 진다.

2. 유품의 제작방법

1) 물소중이

물소중이는 처음에는 무명 (俗: 미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법도 무명의 폭을 기준으로 하여 울이 풀리지 않게 마름질 된다. 무명은 각 가정에서 짚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너비는 35~38cm (약 7치)였다.

濟州島의 자는 육지의 자보다 길어서 한자는 일반적으로 52.3cm였고 한치는 장지의 두마디 길이였다. 자가 없는 가정에서는 치수의 기준을 한발, 한뼘, 한주먹, 한조리, 한치로 정하고 있었으며 있는 옷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옷감에 맞게 옷을 완성하게 되어 있다.

가. 물소중이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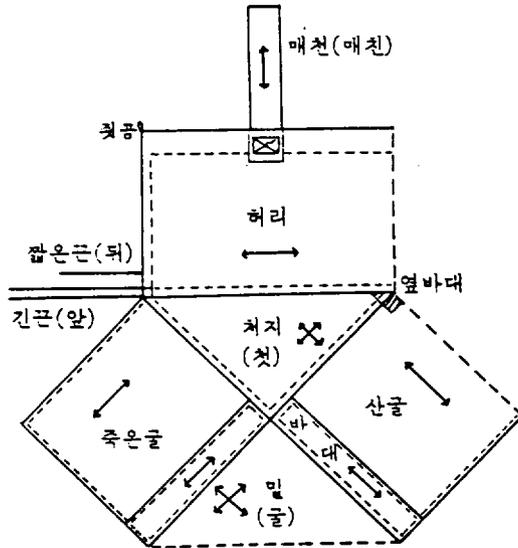


圖 5-1. 물소중이 명칭

(각 지역마다 명칭이 다른 곳도 있었으나 공통적인 것을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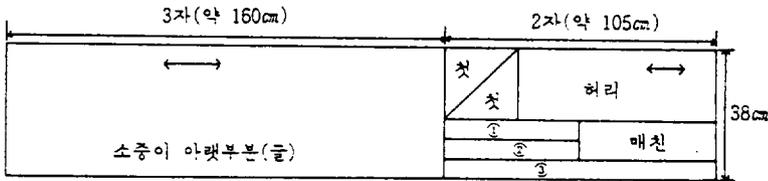
나. 물소증이 옷감 소요량

무명이나 광목을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 무명——5자의 경우 바대 분량이 안 나온다.
- 광목——무명보다 2배이므로 5~6자의 광목에서 두개의 소증을 만들었다. 뚱뚱한 사람인 경우 바대를 넣을 경우에는 6자로 2개의 소증을 만들었다. 그러나 옷감 형편에 따라서 감을 조절할 수 있었다.

다. 마름질

(1) 무명 38cm 폭일 경우



① -부속품(단추, 단추고리) ② -짧은 끈 ③ -긴끈

(2) 광목 90cm 폭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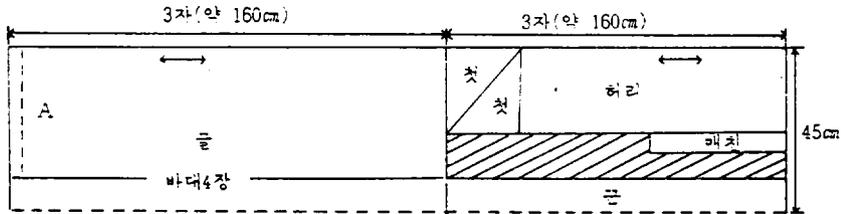


圖 5-2. 물소증이 마름질

무명인 경우 바대 여분이 없으며 허리 높이도 낮아 매치로 옷 길이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가슴이 보일 염려가 있고 오른쪽 옆단을 델 옷감의 여유도 없어 체격이 큰 경우에는 오른쪽 옆 틈이 많이 생기게 된다.

- 90cm인 광목을 폭으로 반을 나누어서 6자(약 320cm) 길이로 하면 물소증이 1개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굴을 여유있게 잡을 수 있어서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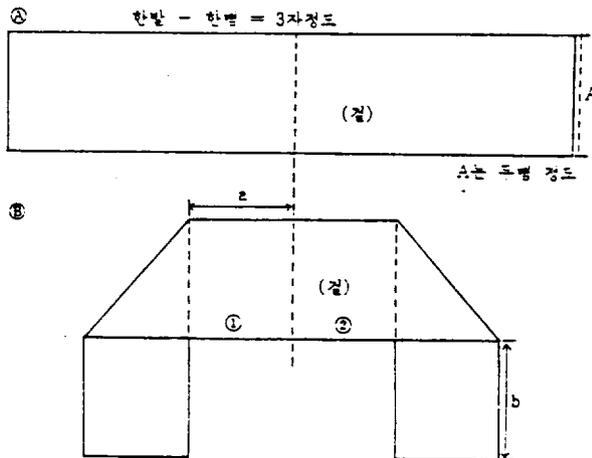
옆단분까지 충분히 댈 수 있고 소중이 아랫부분이 짧은 경우에는 허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물웃을 만들 수 있다.

이상은 물소중이의 기본 마름질을 설명한 것이며 물소중이는 제도도 필요 없고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치수에 의해서 마름질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굴 (소중이 아랫부분) - 한발, 한뼘으로 정하나 뚱뚱한 사람은 한조리를 더 보탠다. 한발하고 주먹으로 한번 휘감는 방법도 있다. 한발이라 하면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오른쪽 손끝에서 왼쪽 손끝까지를 말하며, 한뼘은 엄지와 장지 사이를, 한조리는 엄지와 인지 인지 사이를 말한다.

- 첫(처지) - 일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직각 부분의 길이가 20~23cm이다.
- 허리너비 - 옷감의 여유에 따라 길이가 조절되나 보통 한뼘하고 한치를 더한다.
- 매친(어깨근) - 너비는 밑바대의 너비로 하는 것이 보기 좋고 길이는 주먹을 두개 포개어 올린 높이로 정한다.
- 소중이 폭 - 광목으로 만들 때는 A의 치수를 두뼘으로 정한다. (A는 앞 마름질에서 제시되었음)

라. 굴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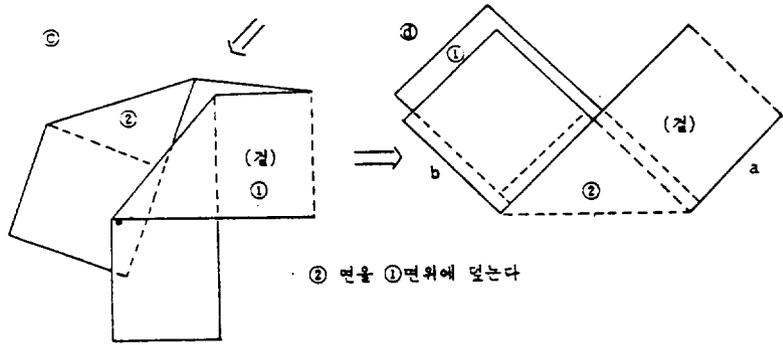


圖 5-3. 굴잡기 순서

a의 치수는 대퇴부 가장 굵은 부위의 높인데 뚱뚱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뼘하고 엄지손가락을 더한 길이로 정한다. b의 치수를 a의 치수보다 2cm 넓게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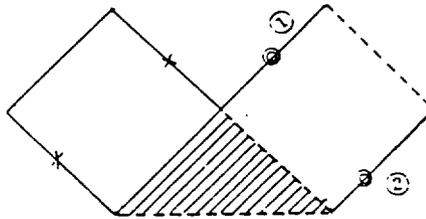


圖 5-4. 굴잡기

㉑과 ㉒는 치수를 같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뚱뚱한 사람은 ㉑을 넓게 잡는다.

마. 바느질 하기

(1) 밑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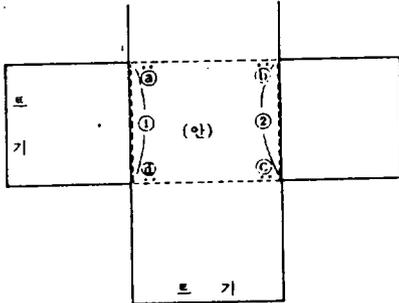


圖 5-5. 밑박기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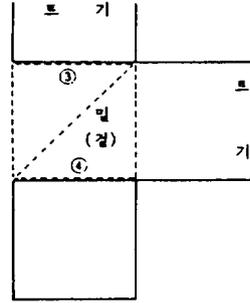


圖 5-6. 밑박기 II

소중이 밑 4귀퉁이에 ③①④②처럼 두 땀 썩 떠서 형태를 고정시킨다. ①과 ②를 안쪽으로 0.2cm정도 들어 와서 한줄 썩 박는다.

바대를 붙일 경우에는 ③과 ④를 한 줄 썩 박고 바대를 붙이지 않을 때에는 두 줄 썩 박는다.

(2) 밑바대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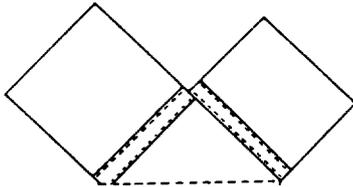


圖 5-7. 밑바대 대기

밑바대 위치에 대고 두번썩 박는다.

(3) 처지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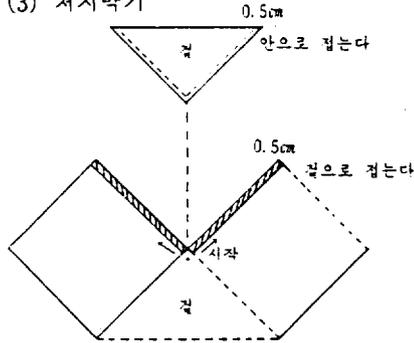


圖 5-8. 처지막기

• 처지의 시접 0.5cm를 처지 안쪽으로 접고 굴쪽의 시접을 굴겉쪽으로 접어서 서로 마주보게 한다음, 중심을 잘 맞추고 중심에서 부터 각기 오른쪽, 왼쪽으로 두 줄씩 박는다.

(4) 옆바대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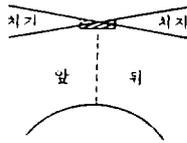


圖 5-9. 옆바대 대기

앞과 뒤의 처지가 만나는 옆에 처지의 삼각 끝을 숨기기 위해 옆바대를 댈다. 끈을 당길 적에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대를 대서 단단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소증이의와 다른 옷감을 대서 장식의 효과도 냈다.

(5) 옆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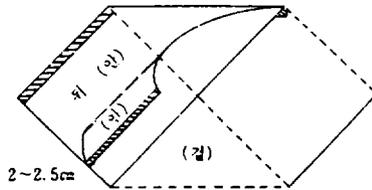


圖 5-10. 옆단하기

옆선의 안단은 옷감의 여유에 따라서 접어서 박는데 2~2.5cm가량 접는 것이 좋다. 이 부분도 장식적인 역할을 했다.

(6) 굴드런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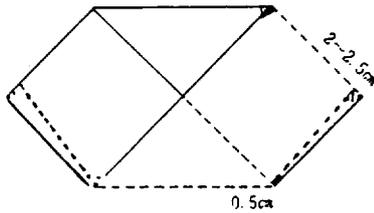


圖 5-11. 굴드런하기

굴아랫단을 그림과 같이 약간 사선으로 박는다. 옆선 쪽을 올려 주지 않으면 아랫단이 구겨져서 불편하고 빨리 헐기 때문이다.

(7) 허리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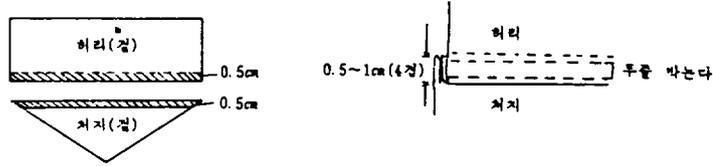


圖 5-12. 허리달기

소중이의 허리 둘레의 시점을 0.5cm 허리쪽으로 접는다. 소중이의 처지 시점은 처지쪽으로 접어서 서로 시점끼리 마주보게 한 다음 허리에서 앞트임 쪽으로 허리를 달기 시작하여 두번 박는다. 안쪽에는 시점 처리가 깨끗해야 한다.

(8) 허리단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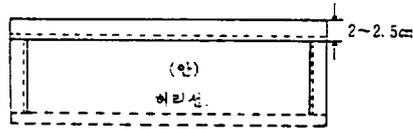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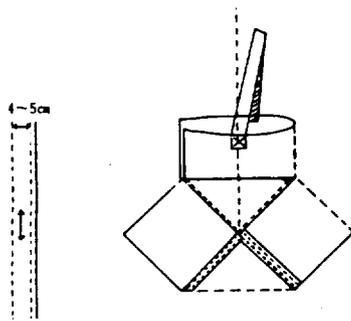


圖 5-13. 허리단하기

옆단을 접어 박은 다음 허리 윗단 완성선이 2~2.5cm가 되도록 시점을 접어 넣어 박는다.

(9) 매친 만들어 달기



뚜를 빈으로 접어서 박는다 (매친 만들기)

圖 5-14. 매친 만들어달기

매친을 달 때에는 앞쪽의 끈은 앞 중심선 위치에 걸치되 약간 옆트임 쪽으로 당겨서 달고 뒤쪽의 끈은 중심선에서 옆 골선 쪽으로 조금 당겨서 단다. 매친을 다는 곳에는 덧친을 대어 대각선으로 누볐으며 또한 소중이와 다른 옷감으로 대어 장식의 효과를 냈다.

(10) 허리끈 달기

끈은 유품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앞쪽의 끈은 대략 2~3cm 나비로 뒤끈보다 넓고 길게 만들어 달았다. 앞끈은 뒷 허리를 한번 돌아 배꼽부근에서 매듭을 지었다.

(11) 단추고리와 단추 만들어 달기

2~3mm의 굵기로 옷감을 말아 감칠질 한다. 옷감과 다른 색실을 사용하여 장식의 효과를 낸다. 이때 끈은 손으로 반드시 감칠질 해야만 하고 만일 재봉틀로 박아 버리면 별모작 단추를 만들 수 없다.

단추는 4개를 달지만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은 6개를 달아 12곰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첫번째 단추를 췌곰이라 하는 이유는 젓가슴을 숨기는 곳이어서 췌곰(濟州島 方言에 젓을 췌이라고 하므로 젓가슴끈을 의미)이라 불렀다.

별모작(돌마귀)단추 만들기—우리나라 연봉 매듭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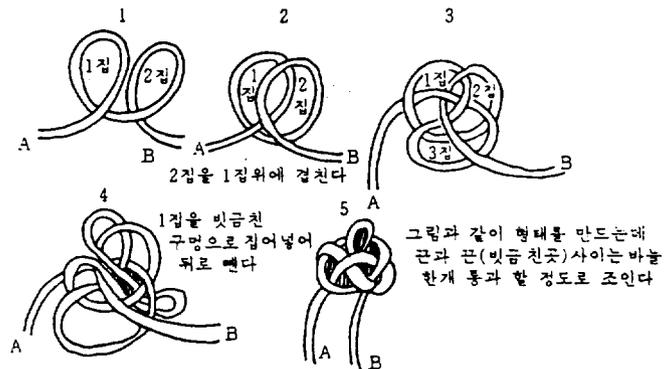


圖 5-15. 단추고리와 단추만들어달기

2) 물적삼과 물수건

물적삼은 광목을 사용할 때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광목의 폭을 가지고 만드는 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소요량

광목 3자(약 160cm)로 물적삼과 물수건을 만든다.

나. 마름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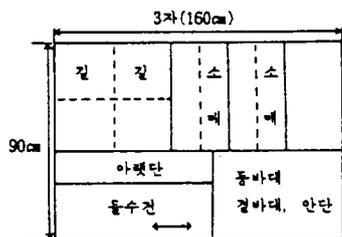


圖 5-16. 물적삼과 물수건 마름질

다. 바느질 하기

(1) 소매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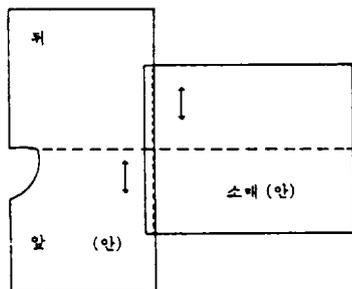


圖 5-17. 소매달기

0.3cm의 시접 너비로 박아 시점을 길쪽으로 보내고 겉에서 다시 한번 상침한다.

(2) 바대하기 및 안단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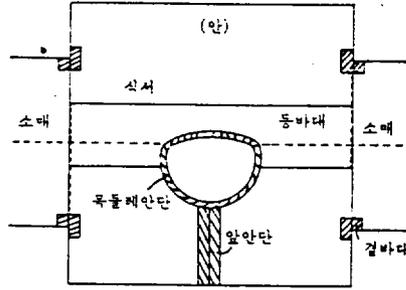


圖 5-18. 바대하기 및 안단대기

등바대 — 걸바대 — 앞안단 — 목둘레안단 순으로 박는다.

(3) 옆선, 소매배래 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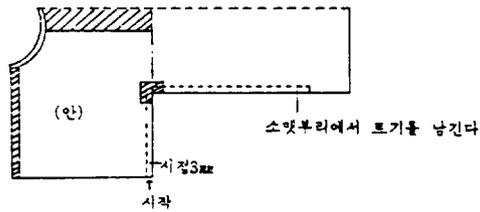


圖 5-19. 옆선, 소매배래박기

도런에서부터 소매배래까지 통솔로 박는다.

(4) 아랫단과 소매커프스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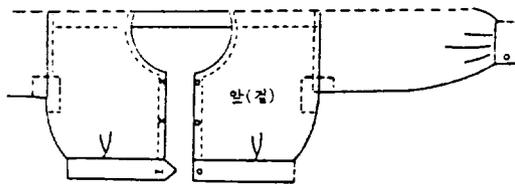


圖 5-20. 아랫단과 소매 커프스달기

등솔기선에 맞주름을 잡고 좌·우 앞기 도런쪽에 좌·우 각각 주름을 잡아 아랫단을 이어 박는다. 소매도 마찬가지로 주름을 잡는다.

(5) 단추구멍 및 단추달기

별모작 단추와 단추고리는 물소증이 단추하기와 같고 보통 단추를 달 때에는 단추구멍의 위치는 오른쪽에서 내어 블라우스의 여밈과 같게 한다.

(6) 물수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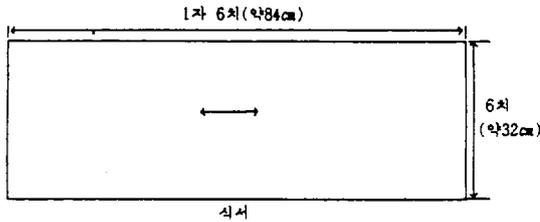


圖 5-21. 물수건하기

식서를 남기고 3면을 0.5cm 접어서 박는다.

V. 濟州島 海女服 의 特徵

1. 옆트임이 특징적이다.

濟州島 물소증이 오른쪽 트임은 시대상으로 봤을 때 과감한 처리라고 볼 수 있다. 한복의 트임은 폐쇄적이어서 직접 살이 보이게 트여진 옷은 없다. 저고리의 여밈이나, 치마자락의 여밈은 겹쳐지게 되어 있으며, 당의, 원삼의 트임은 겹쳐지지 않으나 도덕적인 관념에 의하여 몸을 겹겹이 싸서 입는 습관이 있어 직접적인 노출은 있을 수가 없었다.

조선 시대 여자 내외로 착용하였던 고쟁이 바지와 풍차 바지의 밑부분에도 트임은 있었으나 밀이 겹쳐져 있다.

반면 濟州島 부녀자들이 입었던 하의 「소중이」는 트임이 고쟁이같이 밑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트임이 되어 있어 기능적인 면을 옆트임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 윤리면이 앞섰던 시대에 직접 살이 보이게 트여진 것은 도덕적인 면보다 기능성을 더 요구했어야만 했던 현실적인 면을 이 물소중이 트임에서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물소중이의 트임이 처리해 주고 있는 기능적인 면은

첫째, 입고 벗기가 편하다. 옷을 갈아 입을 공간 없이 바닷가 한가운데서, 배위에서, 젖은 물웅에서 마른 물웅으로 수시로 갈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라도 자신의 알몸을 노출시키지 않고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다.

둘째, 몸을 조절하는 여유의 공간이 된다. 물웅은 정확한 치수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고 어림 짐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었다. 만일 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덧단을 델 수 있었고 (圖 6-1) 옷감이 부족한 경우는 단추고리의 길이를 연장하여 트임에서 품을 10cm 정도는 가감할 수 있어 옷감을 절약할 수 있었다. (圖 6-2)

셋째, 미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물소중이의 트임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조건이 복식 형태의 기본적인 출발점이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 트임은 미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또 그 부분을 장식하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 (圖 6-4) 단순한 형태에서 트임에 의한 분할의 미는 면의 분할로써 변화감을 주기도 하면서 활동성과 자유스러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트임은 짧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물소중이의 트임은 중국의 치이파오(旗袍) 트임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중국의 치이파오는 밑단에서부터 트임이 시작되어 무릎선까지 올라가 끝나지만 여성의 다리를 노골적으로 노출시켰다는 육감적인 면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반면 물소중이의 트임은 기능적 요구에 의한 자연스러움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은근한 멋으로 받아들여진다.

2. 옆바대, 매친, 밑바대, 옆단에 스티치로 또는 조각 형겼을 활용하여 장식하였다. (圖 6-3, 5, 6, 7)

기능을 요구했던 작업복에 장식을 한다는 것은 보기 힘든 사실이지만 해녀들은 잠수업에 대한 자긍심을 장식으로 나타냈다.

<스티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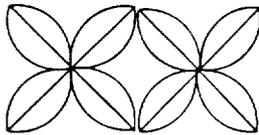


圖 6-8. 칠보연속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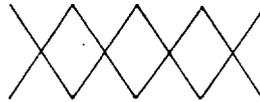


圖 6-9. 능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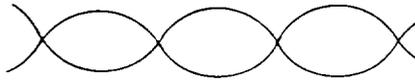


圖 6-10. 물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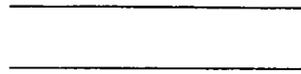


圖 6-11. 일자연속문

<조각 형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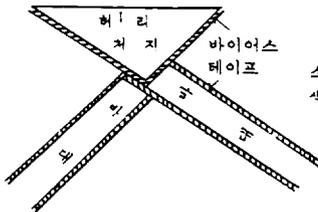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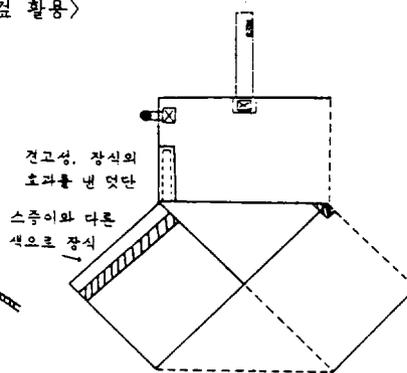


圖 6-12 조각 형겼을 활용한 장식



또한 소중이에 사용되는 바느질 실은 미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바탕감의 반대색으로 대비의 효과를 냈다. 검정옷에는 흰실, 흰 옷에는 검정실, 검정옷에는 흰 형질의 단추, 단추고리, 흰 옷에는 검정 형질을 이용하였다.(圖 6-13)

3. 제작 방법이 합리적이다.

濟州島는 옷감을 귀하게 여겨 한 울의 형질이라도 쓸모있게 사용했기 때문에 해너복을 만들 때 옷감을 여유있게 준비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부족한 듯한 옷감을 가지고도 체격에 맞게 조절하여 융통성을 보였다.

물옷의 구조는 대각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각난 천을 활용하여 이어도 어색한 느낌이 없으며 궁색한 점을 숨기기 위해 이음까지 디자인의 요소로 활용했다.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는 옆바대(圖 6-14), 마찰로 인해 닿기 쉬운 곳은 등바대(圖 6-15)와 굴바대(圖 6-16)를 대어서 견고성을 높였다. 또한 밑이 바이어스로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자맥질(잠수)할 때 다리를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며 반경이 90cm까지는 가능하다. 앉고 서는데 인체에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는다. 처저 부분도 바이어스로 되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 배가 나온 사람도 압박감을 받지 않고 입을 수 있다.

4. 착용 방법이 합리적이다.

물옷은 앞과 뒤가 꼭 같아 앞·뒤로 바꾸어 입어도 상관없이 있지만 관습적으로 옆트임이 오른쪽으로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오른쪽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쉽게 손이 닿을 수 있게 트임을 오른쪽으로 하였으며 반면에 물적삼은 단추를 달았으므로 한복 적삼과는 달리 블라우스의 여밈과 같이 왼쪽으로 하였다. 착용 방법은 입을 때는 막혀 있는 쪽에 왼쪽 발을 넣어 매친(어깨 끈)을 걸쳐 허리 끈을 둘러 맨다. 겨드랑이 꿇음부터 단추를 매기 시작하여 대퇴부까지 단추를 잠근다. 벗을 때는 허리 끈을 풀고 다음 단추를 풀어 매친을 내리면서 벗는데 이러한 동작은 대개 앉아서 행해지며

어떠한 장소에서도 순간에 옷을 갈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 한 가운데에서도 배 위에서도 뱃사공이라도 알몸을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옷과 젖은 옷, 젖은 옷과 다른 옷으로 번갈아 가면서 갈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착용법이 편리해야만 했다.

5.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다.

부녀자의 속옷에서 물 맞으러 갈 때 입는 휴양복, 생리대 역할까지 하였다. 밑이 두껍고 넓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심지어 濟州島에서는 "어릴 때는 소중이 한 장으로 절고, 열 살이 되어야 그 위에 무엇을 입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소중이는 어린이 속옷이자 일상복이었다. 노인들은 당연히 소중이를 입었고 또한 죽을 때 입는 호상옷으로도 마련해둔다. 결혼하는 세색시까지 첫 날 밤이 두려워 소중이를 두벌 입었다고 한다. 과부들도 외간 남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벌 입고 잤다고 한다. 이 소중이 두 벌로 좌우로 엇바꾸어 입고 있으면 어떤 억센 남성도 침범하지 못할 만큼 완전 무장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소중이는 濟州島 해녀들에게는 생과 사를 같이 한 삶을 같이 해온 옷이라고 볼 수 있다.



圖 6-1. 풀이 찢어 된 단속 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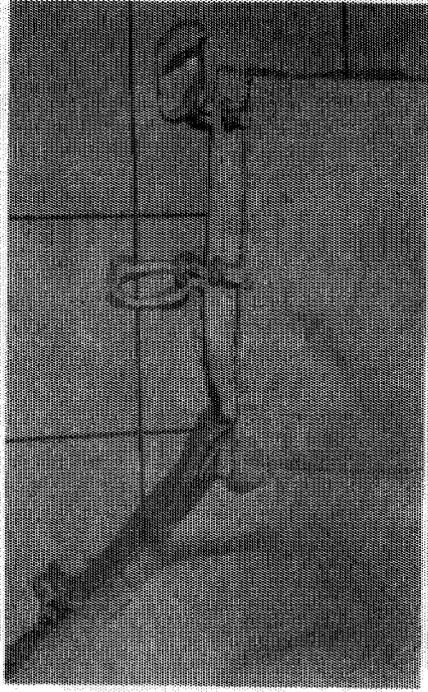


圖 6-2. 단추고리를 연결한 앞 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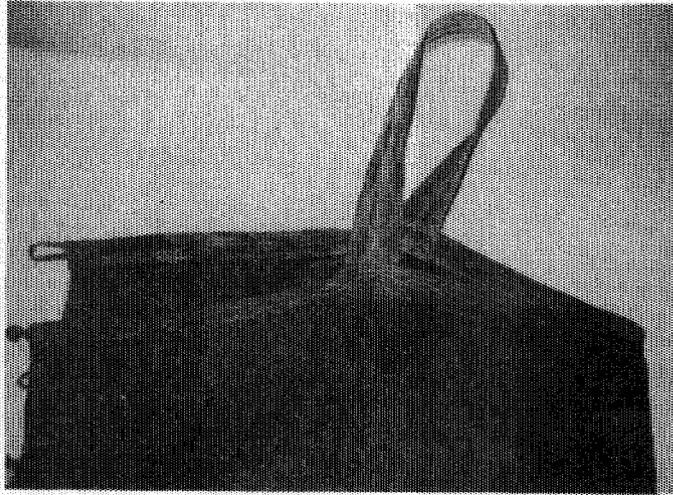


圖 6-3. 물길문과 일자문의 스티치(매친과 단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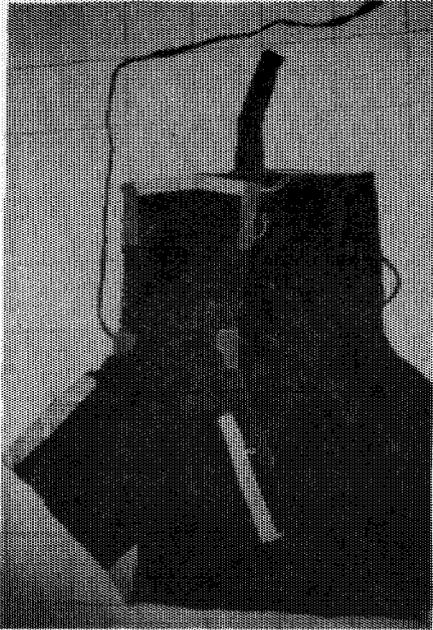


圖 6-4. 濟州島 海女服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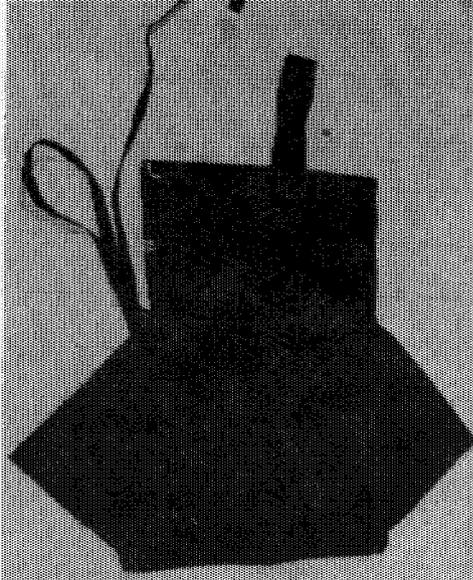


圖 6-5. 斜紋色 바이어스 테이프를 활용한 장식



圖 6-6. 濟州島 海女服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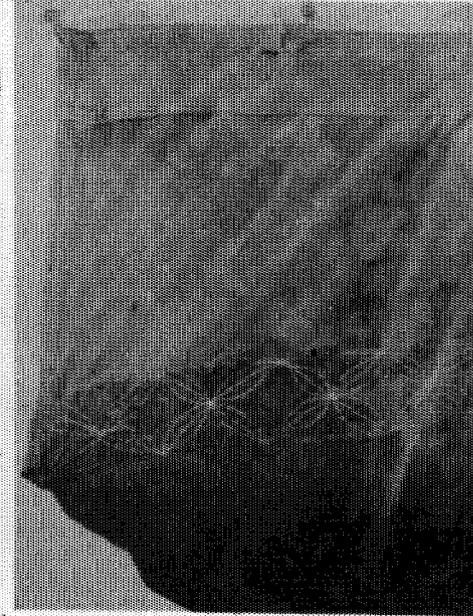


圖 6-7. 菱形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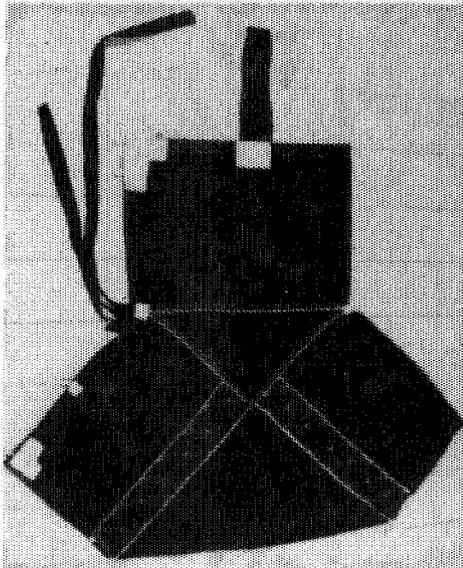


圖 6-13. 대비의 효과를 낸 울소종이



圖 6-14. 연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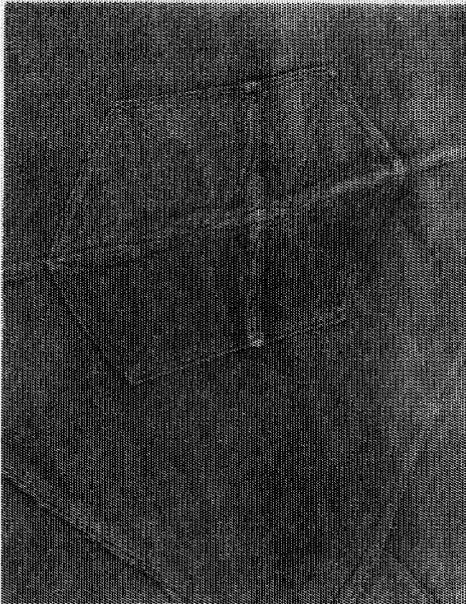


圖 6-15. 동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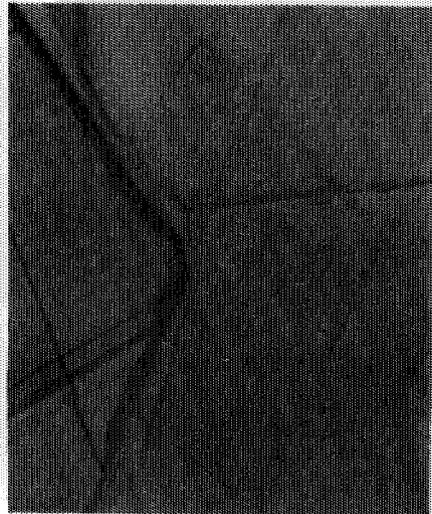


圖 6-16. 굴바대

VII. 結 論

이와 같이 濟州島의 풍토와 복식, 濟州島 해녀복의 역사적 고찰, 濟州島 해녀복에 대한 유품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濟州島는 섬이라는 여건, 척박한 땅, 일본과 중국의 참략 및 간섭으로 생활 환경이 가난했다. 특히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강인하고 근면, 검소한 정신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풍토는 경제성과 기능성을 요구하는 濟州島 양식의 민속복을 발달하게 했으며 그 중 해녀복은 濟州島 여성과 함께 전승된 민속복이다.

2. 해녀복에 대한 설명이 문헌상으로 처음 기록된 것은 17세기 李健 牧使의 〈濟州風土記〉에서이다. 여기에서 赤身露體라 함은 濟州島 여성들의 下衣內衣인 소증이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시킨 潛女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까지 입어 왔던 물소증이는 濟州牧使 李衡祥(1702) 당시 고안된 옷으로 흰 색의 수중작업복을 입은 해녀의 모습을 〈耽羅巡歷圖〉에서 발견할 수 있다.

3. 濟州島 해녀복은 지역적 차이는 없으며 물소증이는 기본적인 구조에서 매진이 어깨달이로 변하였고 점차 실용적인 검은 옷을 많이 입었다. 그리고 젊은 해녀층에서는 장식으로 美的感覺을 높였으며 1930년대 이후 종래의 양식 위에 물적삼이 등장하고, 1960년대는 물수건이 대부분 까부리라는 모자로 바뀌어지며 1970년대부터 고무잠수복을 입기 시작했다.

4. 유품 21점의 물소증이는 그 형태에 있어서 나뭇대로 특색을 갖고 있었으며 체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물질할 때 다리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폭의 여유분은 70~90cm였다. 옷길이는 허리 선에서 29~33cm 내려온 위치가 되며 허리 너비는 20~23cm였다. 오래된 해녀복일수록 허리 너비가 좁으며 노인들의 옷은 허리 너비가 좁아 가슴이 보일 염려가 있었다.

5. 물소중이는 무명이나 광목을 사용하였는데 옷감 소요량은 무명인 경우 5자로 1개를 만들었고, 광목은 무명보다 폭이 2배이므로 5~6자에서 2개의 물소중이를 만들었다. 만드는 방법은 무명의 폭 (약 38cm)을 기준으로 하였고 치수는 尺(濟州島 자: 52.3cm)보다는 어림 짐작에 의한 한발, 한뼘, 한조리, 한치로 하여 부족한 듯한 옷감을 가지도록 애써서 체격에 맞게 융통적으로 제작을 하였다.

물적삼은 광목 3자로 물수건까지 만들었으며 적삼이나 블라우스의 형태와 비슷하다. 마름질하는 방법과 바느질하는 방법은 적삼과 비슷하고 네크라인과 앞단은 블라우스 형태로 등근 목둘레 선에 깃과 섶이 없다. 형태적인 뚜렷한 구별은 한복 적삼은 여밈이 우입인데 반하여 물적삼은 블라우스와 같이 좌입으로 여미게 되어 있으며 물적삼은 보통 진동너비가 한복 적삼보다 5cm 정도가 짧은 15~18cm로 소매 배래가 진동너비와 일직선이다.

6. 濟州島 해너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옆트임에 의해 기능성과 실용성을 해결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스티치나 또는 조각 형질을 활용하여 장식하였다. 그리고 제작 방법과 착용 방법이 합리적이어서 어떠한 장소에서도 순간에 젖은 옷에서 마른 옷으로 쉽게 번갈아 입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濟州島 해변가 여인들은 속옷이나 작업복으로 다양하게 입어 왔다.

參 考 文 獻

- 강대원(1973), 「해녀연구」, 개정판, 제주: 한진문화사.
- 高富子(1971),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的 研究” 梨花女子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未刊行)
- _____ (1986), “濟州島 女人들의 속옷에 관한 研究”, 「濟州島研究」 제3집, (濟州島研究會) pp. 135-162.
- 高 銀(1976), 「濟州島」, 서울: 일지사.
- 金富軾(高麗仁宗23年, 1145), 「三國史記」(서울: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1973).
- 김영돈 (1986), “濟州海女の 民俗學的 研究”, 「濟州島研究」, 제3집, (濟州島研究會) pp. 163-210.
- _____ · 김범국 · 서경림(1986),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제5집, 제주: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pp. 133-242.
- _____ · 현평효 · 현용준 · 강경선 · 고성준 · 양중해 · 김인재(1979), “탐라정신 연구” 「제주대학논문집」 제11집, pp. 23-48.
- 金奉玉(編)(1980), 「高內里誌」, 濟州: 在日本 高內里 親睦會
- _____ (編)(1986), 「朝鮮王朝實錄中耽羅誌」, 濟州: 濟州文化放送株式會社.
- 조선사학회 (1930), 「新增東國輿地勝覽」, 서울: 조선사학회.
- 민경희 (1964), “한국해녀의 역사 및 생활실태”, 「梨大史苑」, 5집, pp. 85~92.
- 박경자 · 임순영, (1983), 「한국의상구성」, 서울: 수학사.
- 北濟州郡 (1987), 「北濟州郡誌」, 제주: 북제주군.
- 석주명 (1968), 「濟州島수필」, 서울: 보진재.
- 오문복 (編)(1988), 「영주풍아」, 제주: 제주목석원출판부.
- 이동규 (1988), “제주도일기 및 기후”, 「국제화 시대의 제주도 연구」, 제주: 제주도 연구회, pp. 95~110.

- 李衡祥 (肅宗 [1702]), 「耽羅巡歷圖」,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본, 1979.
- _____ (1973), 「瓶高年譜」, 서울: 淸權詞, 影印本, 1979.
- 제주시 (1985), 「濟州市 30年史」, 제주: 제주시.
- 濟州道 (1982), 「濟州道誌」 하권, 제주: 濟州道.
- 曹圭和 (1982), 「服飾美學」, 서울: 修學社.
- 주순재 · 이길열 · 이양자 · 박양생 (1983), “한국 해녀의 영양섭취상태 및 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제16권 제4회 pp. 135-162.
- 진성기 (1979), 「제주민속의 멋」, 서울: 열화당.
- 최영희 (1987), “역사기행: 제주편”, 「향토문화시대」, 서울: 정경연구소. pp. 458-478.
-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탐라문헌집」, 제주: 제주도교육위원회.
- 탐라성주유사편집위원회 (1979), 「탐라성주유사」, 제주: 高氏宗親會總本部.
-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한국의 복식」,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 한림화 · 김수남 (1987), 「제주바다잠수의 사계」, 서울: 한길사.
- 현혜경 (1977), 「濟州島 복식에 관한 연구」, 수도여자사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杉本正年 (1976), 「東洋服裝論攷」(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 中村由信 · 宮本常一 (1978), 「海女」, 株式會社マリン企畫
- 泉靖一 (1971), 「濟州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Summary

A Study on the Woman Diver's Costume in Cheju Island

KIM Jung-Sook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survey the historical change of woman-diver's costume of Cheju Island and to review the method of making them through diagramming the relics of Mul-sojunggi and Mul-jucksam as the main objectives. Furthermore this thesis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ostume of woman-diver in Cheju Island.

The woman-diver's costume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 clothes (that were similar to swimming suits) and accessories (that correspond to the equipments for catching marine products), which were worn or used when they dove into the sea water to get top-shells, sea-ears, and sea-weeds, etc... A set of the clothes consists of Mul-sojunggi(물소중이), Mul-jocksam(물적삼), and Mul-sugon (물수건), A set of the accessories includes Noon (눈 under-watereye-glasses), Taewak(태왁), Mangsali(망사리), Bichang(빗창), Jonge-Homi(정계호미), Kol-gakji(골각지), Mul-gudok(물구덕), etc.

Mul-sojunggi had been used until 1970, when the rubber-skin diving costume appeared. Its basic format had been maintained without outstanding changes across place, but marginal changes occurred only in the shoulder strings (Maechin : 매천), colors and decorations. Mul-jocksam appeared after the 1930's and Mul-sugun was replaced

with a hat called caburi(까부리)in the 1960's. Mul-sojugi was designed to be made on the basis of the width of the cotton cloth(미녕 : about 38cm) and, at minimum, 5 ja(ja used in Cheju is 52.3cm)of cotton cloth was required for making one suit of Mul-sojunggi. However, the length was measured with han-bal (한발 : two arms spaced apart), one span (한뼘), han-jo-ri(한조리 : distance from thumb to index finger), or han-chi (a tenth of ja) by rough guess rather than using ja (자).

Mul-jöcksam and Mul-sugön could be made with a total of 3 ja of cotton cloth and the methods of sewing and cutting was similar to those used in making Korean traditional jöcksam.

The neckline and front part of Mul-jöcksam took the form of a blouse. In the Korean traditional jöcksam, the neckband is to be arranged toward the right side while Mul-jöcksam was adjusted into the left side.

Through the above surve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ving woman's costume in Cheju Islan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unctionality and practicality were increased by slitting both sides and the clothes were decorated with sitches or scraps of cloth.

Moreover, since those clothes could be made easily and worn quickly, most women residing at the sea-shores of Cheju Island wore those clothe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work clothes or underwear.